

기후정치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인천 보고서

2024. 2



발행 | 기후정치바람(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조사기관 | 메타보이스(주)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2
1. 조사 설계	3
2. 응답자 특성	4
제2장 조사 결과	5
PART A. 기후위기 관련 정보 인식 및 기후민감도	6
1. 기후위기 관련 용어 및 표현 인지	7
2. 기후변화 실제 발생 인식	9
3. 기후변화 원인: 자연 변화 vs. 인간 활동	10
4.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인지/정서 장애(종합)	11
5.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기능 장애(종합)	13
6.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개인경험(종합)	15
7.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행동참여(종합)	16
PART B.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판단	18
1. 지난 1년간 거주지에서 발생한 재난	19
2. 최근 국내 재난과 기후변화 관련 인식	20
3. 최근 국내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원인	21
4. 7개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 가장 심각한 위기: 1+2+3순위	22
5.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한 이유: 1+2순위	23
6. 귀하의 자산 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24
7. 국내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1+2순위	25
8.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26
9. 탄소중립 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평가	27
10. 기후위기 극복 정책이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	2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마련 방법	29
12.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제안 찬반	30
13. 기후위기 대응 자원 마련을 위해 매달 추가 지불 가능한 금액	31
PART C. 기후위기 관련 정책 인식	32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	33

2.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 권고'에 대한 인지 여부	34
3. 정부의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 계획' 인지 여부	35
4. 국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	36
5.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찬반	37
6.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계획 인지 여부	38
7.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추진 계획 찬반	39
8.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에 대한 인식	40
9.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	41
10. 월간 가구 평균 전기요금	42
11.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	43
12. 광역시·도의 바람직한 수준의 전력자립도	44
13.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단가 차등화 주장에 대한 찬반	45
14.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	46
15. 국내 대형 주차장 내 태양광발전 설비 의무 설치에 대한 찬반	47
16.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 경험	48
17.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설치한 계기: 1+2순위	49
18.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설치한 적 없는 이유: 1+2+3순위 ..	50
19. 국내 기업의 'RE100' 동참 중요성	51
20. 국내 기업 'RE100' 실천의 산업 경쟁력 강화 중요성	52
21.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대한 찬반	53
22.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	54
23.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	55
24.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종료 찬반	56
25.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개선 방향	57
26.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대한 찬반	58
27.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	59
28.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반대하는 이유	60
29.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 1+2순위	61
30. 선호하는 대중교통 'K-패스' 운영 방식	62
31. 자동차 무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정책에 대한 찬반	63
32.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주장에 대한 찬반	64
33. 정부의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에 대한 동의	65
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야 하는 정책: 1+2순위	66
35.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농민에 예산 지원 찬반	67
36. 정부가 우선해야 하는 폐기물 관련 정책: 1+2순위	68
37.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에 대한 의견	69

PART D. 지역 이슈 인식	70
1. (인천)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찬반	71
2. (인천) 용진군 석탄발전소 운영 의견	72
3. (인천)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 추진에 대한 찬반	73
PART E. 기후위기 대응 책임 및 평가	74
1. 후보 공약 중 가장 관심이 큰 분야: 1+2+3순위	75
2.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대한 태도	76
3.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관심 표현 방식	77
4.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한 태도	78
5.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에 대한 태도	79
6. 기후위기 문제 발생 책임: 1+2순위	80
7. 기후위기 문제 해결 책임: 1+2순위	81
8. 기후위기 대응 평가(종합)	82
9. 국회의원 중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원 수(평균)	84
10. 국내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이 아닌 이유	85
PART F. 행위 의지	86
1.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의향	87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육류 소비 줄일 의향	88
3. 구매 예정인 차량 유형	89
4. 거주공간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향	90
5. 기후위기 대응위해 비행기 이용 횟수 줄일 의향	91
6.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주로 많이 접하는 매체	92
PART G. 정치행동 및 현안 인식	93
1. 정치/사회 현안 활동 경험 종합	94
2. 중대재해처벌법 찬반	96
3. 어린이 안전통학로 내 속도제한 상향 조정(40km/h) 찬반	97
4. 노키즈존 찬반	98
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섭취 빈도 변화	99
별첨 설문지	100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6.2%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로는 인구 구성비에 따르는 할당추출(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조사방법	· 온라인패널(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에 이메일/문자로 웹 설문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의 웹 조사
가중방법	·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로는 가중치 부여(셀가중)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27일(27일간)
조사기관	· 메타보이스(주)

※ 자료 해석상 유의 사항 ※

-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례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 통계표의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
권역별			
	인천 1권역	265	26.5
	인천 2권역	290	29.0
	인천 3권역	245	24.5
	인천 4권역	200	20.0
연령대별			
	18-29세	162	16.2
	30-39세	161	16.1
	40-49세	187	18.7
	50-59세	199	19.9
	60세 이상	291	29.1
성별			
	남성	498	49.8
	여성	502	50.2

※ 1권역: 계양구, 부평구

※ 2권역: 남동구, 연수구

※ 3권역: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4권역: 서구

제2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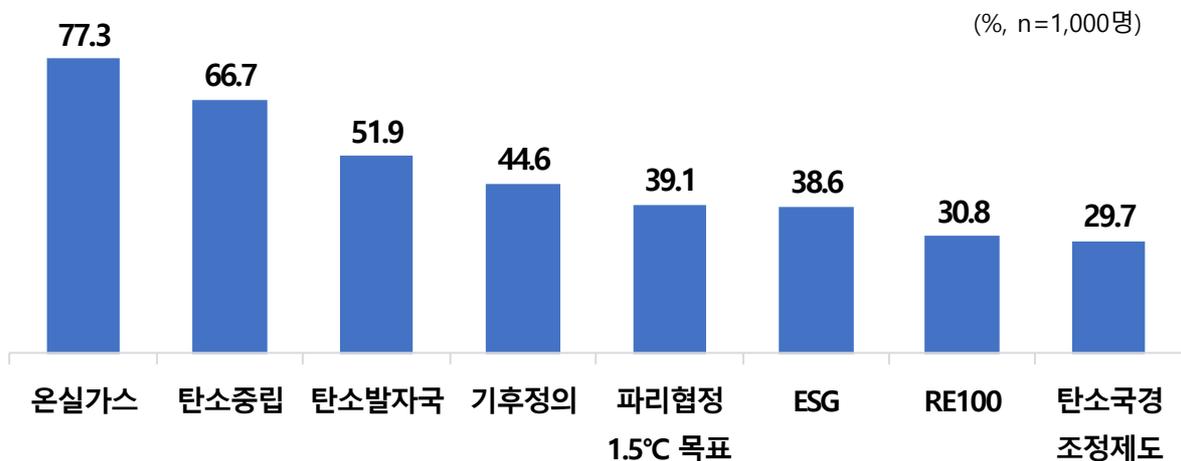
PART A. 기후위기 관련 정보 인식 및 기후민감도

1. 기후위기 관련 용어 및 표현 인지

온실가스 > 탄소중립 > 탄소발자국 > 기후정의 > 파리협정 순

※ 다음은 귀하께서 기후위기 관련 용어나 표현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를 여쭙는 문항입니다. "알고 있다(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

- QA06. 온실가스
 QA07. 탄소발자국
 QA08. ESG
 QA09. RE100
 QA10. 탄소국경조정제도
 QA11. 파리협정 1.5°C 목표
 QA12. 탄소중립
 QA13. 기후정의



○ 전체 분석

-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기후위기 관련 용어 및 표현 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온실가스' 7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탄소중립' 66.7%, '탄소발자국' 51.9%, '기후정의' 44.6%, '파리협정 1.5°C 목표' 39.1%, 'ESG' 38.6%, 'RE100' 30.8%, '탄소국경 조정제도' 29.7%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온실가스' 응답은 남성 82.6%, 여성 72.0%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80.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75.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 인천 4권역에서 77.7%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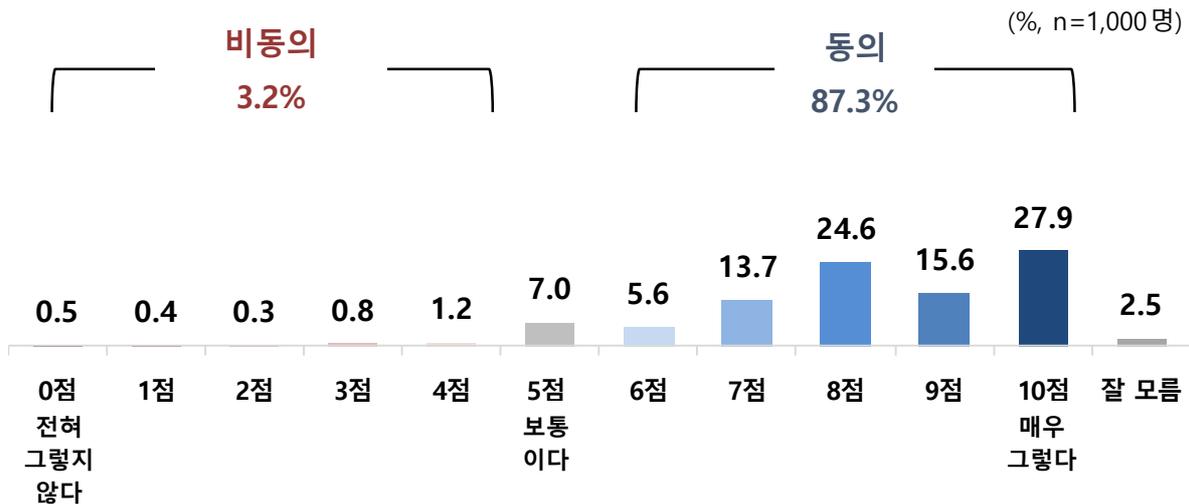
1권역은 77.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2.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73.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2. 기후변화 실제 발생 인식

10명 중 9명 가까이, “그렇다”

QA14. 귀하께서는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매우 그렇다’ 10점까지 점수로 선택해 주십시오.



○ 전체 분석

- 기후변화 실제 발생 인식을 0점~10점의 점수로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비동의 응답 3.2%, “그렇다”는 동의 응답은 87.3%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84.2%p 더 우세함.
- “보통”은 7.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임.
- 100점 환산 시 평균 인식도는 80.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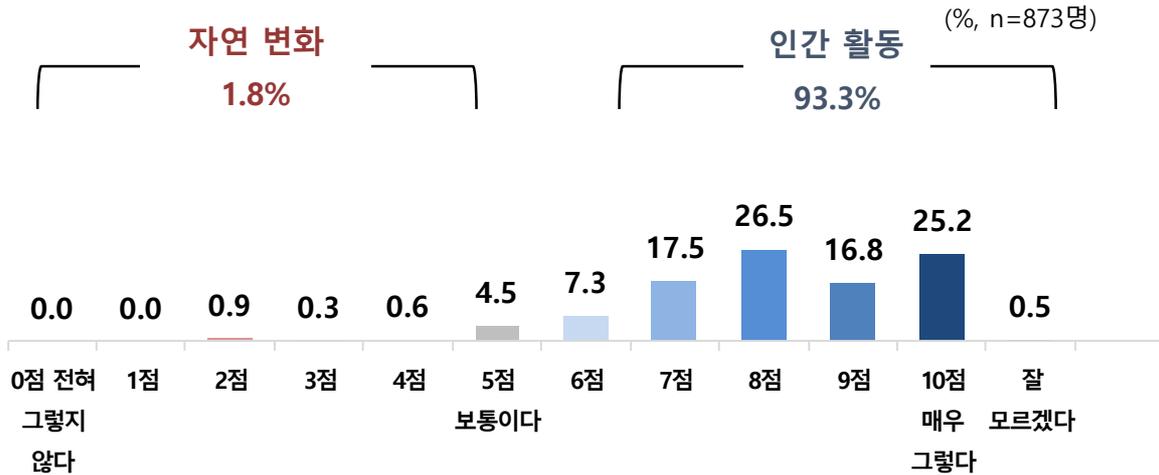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동의’ 응답은 남성 86.3%, 여성 88.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90.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84.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88.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은 87.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92.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84.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3. 기후변화 원인: 자연 변화 vs. 인간 활동

10명 중 9명 이상 '인간 활동'

QA15. (QA14에서 6~10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적 변화와 인간 활동 중 무엇이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자연적 변화' 0점부터 '전적으로 인간 활동' 10점까지 점수로 선택해 주십시오.



○ 전체 분석

- 기후변화 실제 발생 인식을 0점~10점의 점수로 물었을 때, '자연변화'라는 응답 1.8%, '인간활동'이라는 응답 93.3%로 나타남.
- '보통'은 7.3%, '잘 모르겠다'는 0.5%임.
- 100점 환산 시 평균 인식도는 81.3점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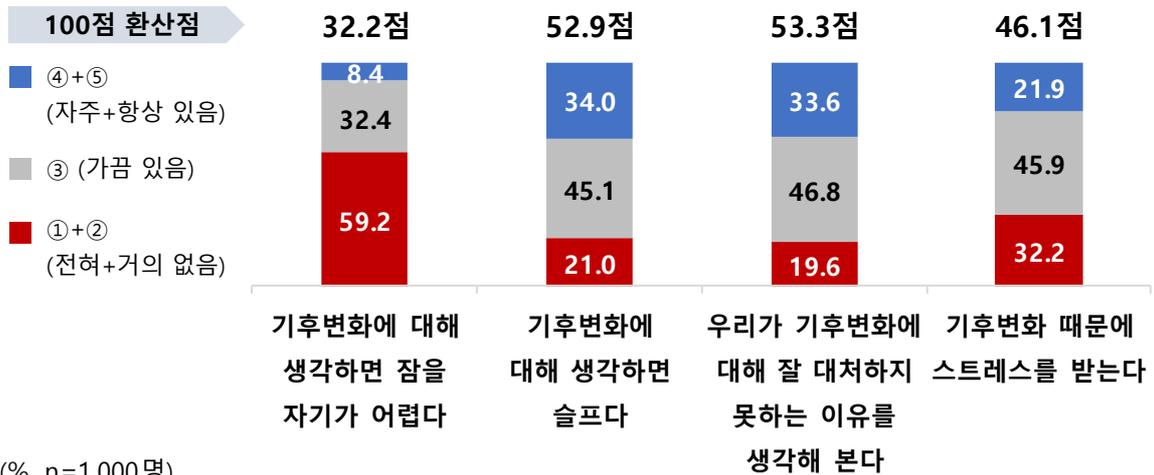
- '인간 활동'이라는 응답은 남성 91.9% 여성 94.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89.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96.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91.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95.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자 중에서 9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4.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인지/정서 장애 종합

“슬프다”와 “잘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대응

※ 다음 문항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진술문에 포함되는 경험을 귀하께서 얼마나 했는지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가끔 있음', 4. '자주 있음', 5. '거의 항상'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CB01.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잠을 자기가 어렵다.
- CB02.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다.
- CB03.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 CB04. 기후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n=1,000명)

○ 전체 분석

- 최근 6개월 동안 기후변화와 연관된 인지/정서 장애 경험 정도를 물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다” 34.0%,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는 응답이 33.6%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1.9%,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잠을 자기가 어렵다” 8.4% 순임.

○ 특성별 분석

- “슬프다”라는 응답은 남성 28.7% 여성 39.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 36.2%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 31.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 35.8%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4권역에서 30.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42.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29.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5.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기능 장애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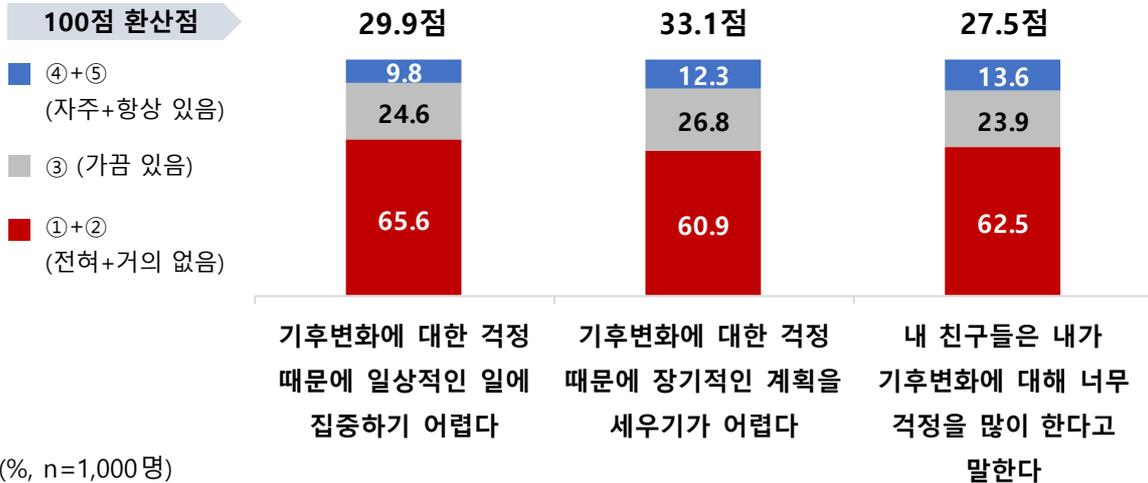
“내가 기후변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친구들이 말한다” 최다

※ 다음 문항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진술문에 포함되는 경험을 귀하께서 얼마나 했는지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가끔 있음', 4. '자주 있음', 5. '거의 항상'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CB05.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CB06.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BC07. 내 친구들은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 전체 분석

- 최근 6개월 동안 기후 변화와 기능 장애 경험 정도를 물었을 때, “내 친구들은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라는 응답이 10.1%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7.7%,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7.5%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내 친구들은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응답은 남성 12.9%, 여성 7.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1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 5.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1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1권역에서 9.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1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9.5%, 보수 성향자 중에서 9.5%로 나타남.

6.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개인경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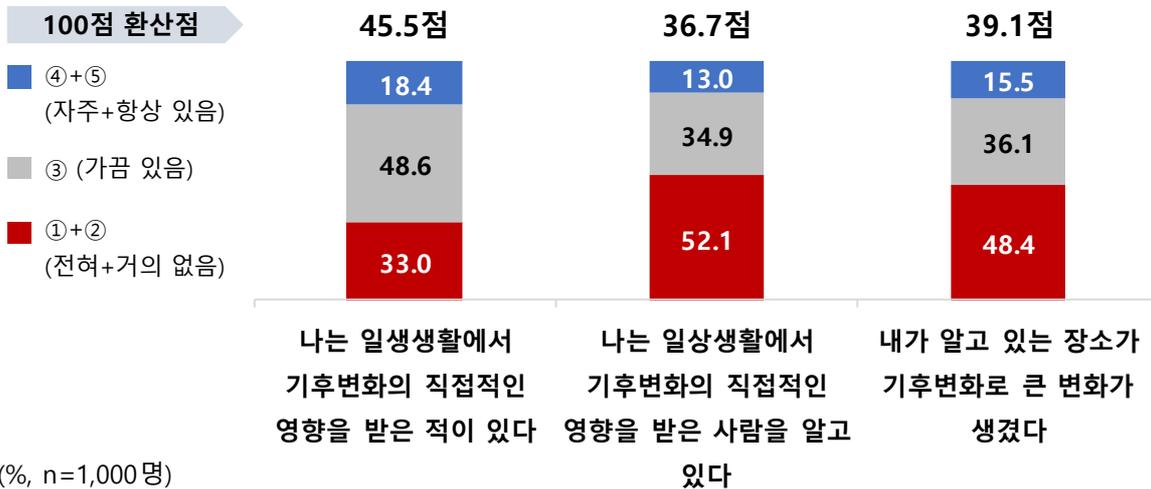
기후 민감도에 대한 응답 대등

※ 다음 문항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진술문에 포함되는 경험을 귀하께서 얼마나 했는지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가끔 있음', 4. '자주 있음', 5. '거의 항상'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QB08. 나는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QB09. 나는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

QB10. 내가 알고 있는 장소가 기후변화로 큰 변화가 생겼다.



○ 전체 분석

- 최근 6개월 간 기후 민감도에 관하여 개인경험 종합을 물었을 때,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1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다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장소가 기후변화로 큰 변화가 생겼다" 15.5%
-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응답 13.0%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응답은 남성 18.2%, 여성 18.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26.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 1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20.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1권역에서 15.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25.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자 중에서 1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7.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행동참여 종합

5명 중 3명 이상, '기후변화 막기 위한 재활용 참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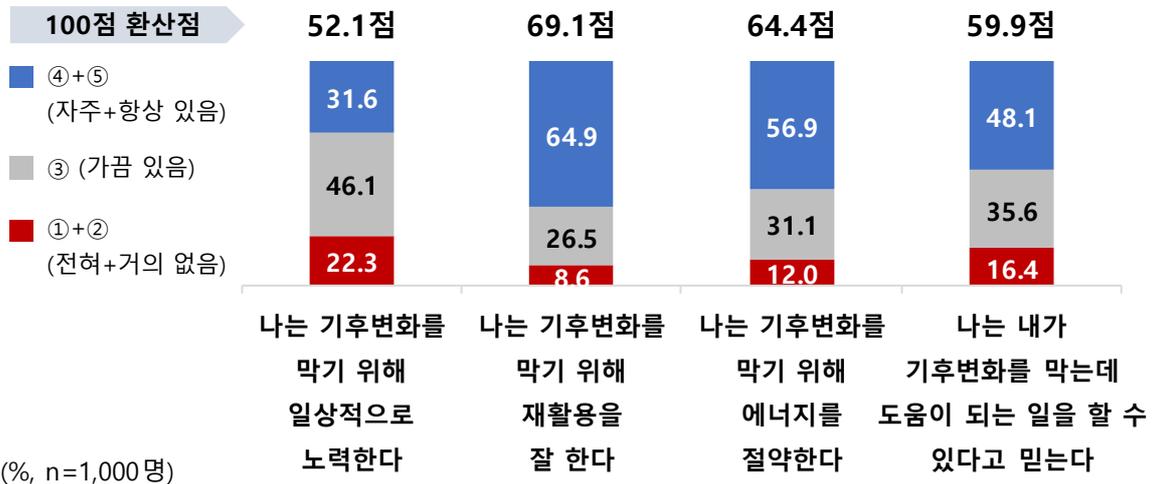
※ 다음 문항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진술문에 포함되는 경험을 귀하께서 얼마나 했는지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가끔 있음', 4. '자주 있음', 5. '거의 항상'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한다.

CB11.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한다.

CB12.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활용을 잘한다.

CB13.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CB14. 나는 내가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전체 분석

- 최근 6개월 간 기후 민감도에 관하여 행동참여 종합을 물었을 때,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활용을 잘한다”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그 다음으로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56.9% “나는 내가 기후변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응답 48.1%,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한다” 31.6%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재활용 참여’ 응답은 남성 59.4%, 여성 70.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1.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5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67.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3권역으로 63.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6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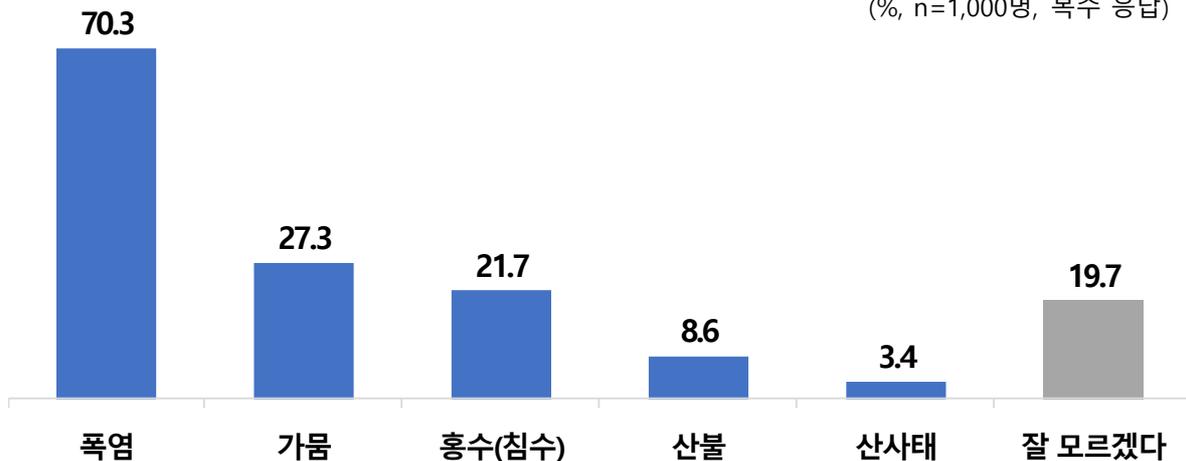
PART B.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판단

1. 지난 1년간 거주지에서 발생한 재난

'폭염 발생' 응답이 가장 많아

QB15.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n=1,000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지난 1년간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모두 물었을 때, '폭염' 응답이 70.3%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가뭄' 27.3%, '홍수' 21.7%, '산불' 8.6%, '산사태' 3.4%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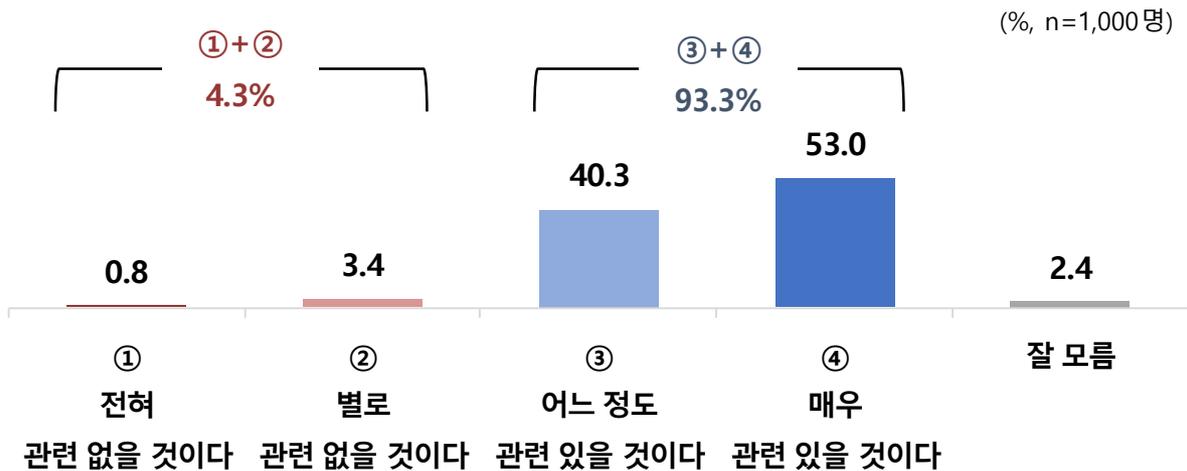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폭염' 응답은 남성 67.8%, 여성 72.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6.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55.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7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3권역에서 67.7%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9.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64.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2. 최근 국내 재난과 기후변화 관련 인식

10명 중 9명,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

QC01. 귀하께서는 최근 한국에서 늘어난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 같은 재난과 기후변화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최근 증가한 국내 재난과 기후변화의 관련 정도를 물었을 때, “관련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93.3%(매우 53.0%, 어느 정도 40.3%), “관련 없을 것이다” 4.3%(전혀 0.8%, 별로 3.4%)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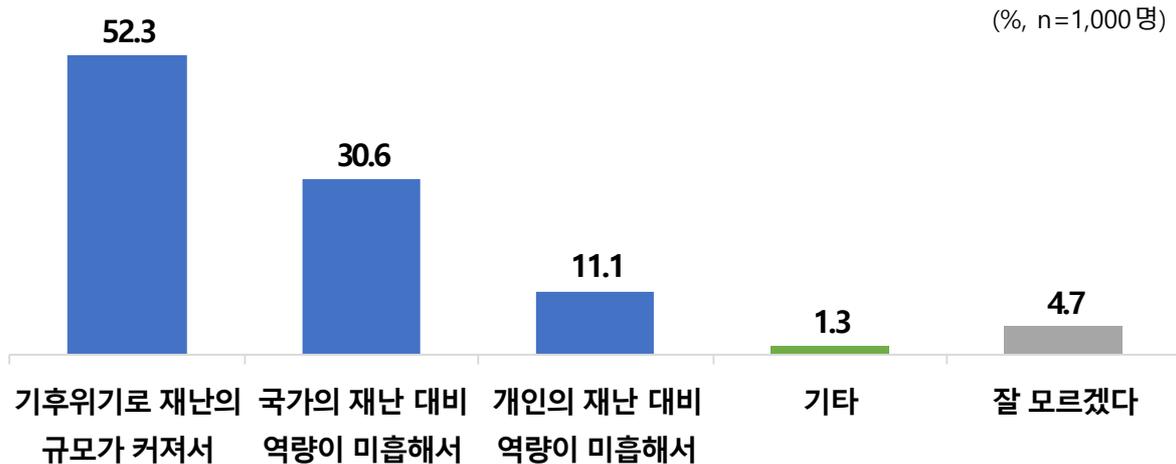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관련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남성 92.1%, 여성 94.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8.7%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18~29세에서 86.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9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천 1권역에서 9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98.5%의 비율을 보였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89.6%의 비율을 보임.

3. 최근 국내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원인

절반가량,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규모가 커져서” 응답

QC02. 귀하께서는 최근 한국에서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원인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최근 한국에서 재난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기후위기로 재난의 규모가 커져서”라는 응답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다음으로 “국가의 재난 대비 역량이 미흡해서”(30.6%), “개인의 재난 대비 역량이 미흡해서”(10.6%)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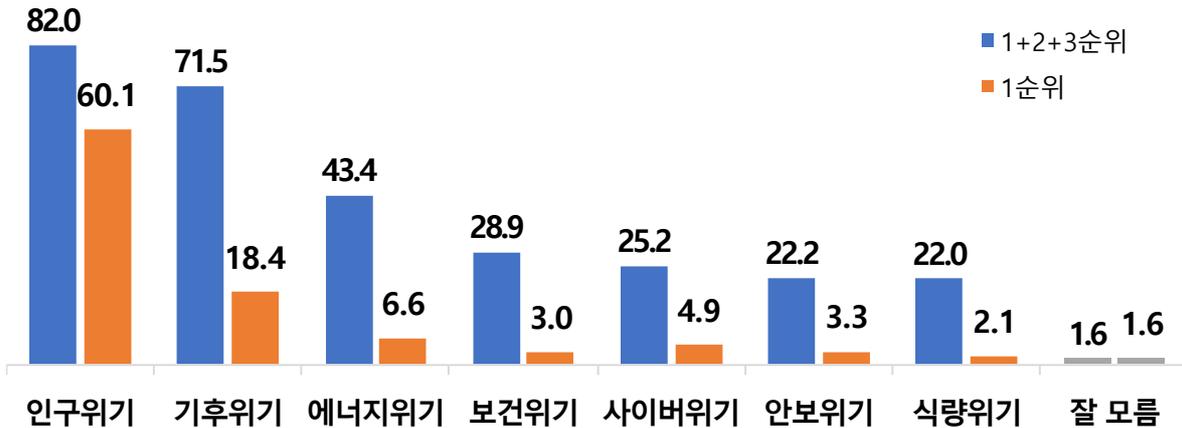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규모 증가’ 응답은 남성 48.9%, 여성 55.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59.2%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30대에서 44.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56.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3권역에서 47.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56.3%로 가장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49.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4. 7개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 가장 심각한 위기: 1+2+3순위

‘인구위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

QC03. 귀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아래 7개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n=1,000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앞으로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 가장 심각한 항목을 물어 1, 2, 3순위를 종합할 때,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위기”라는 응답이 82.0%로 가장 많았으며, ‘폭우 가뭄 등 기후위기’라는 응답은 71.5%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 ‘전기료 상승 등 에너지위기’(43.4%), ‘팬데믹 등 보건위기’(25.2%), ‘AI, 개인정보 등 사이버위기’(22.2%), ‘북핵문제 등 안보위기’(22.1%)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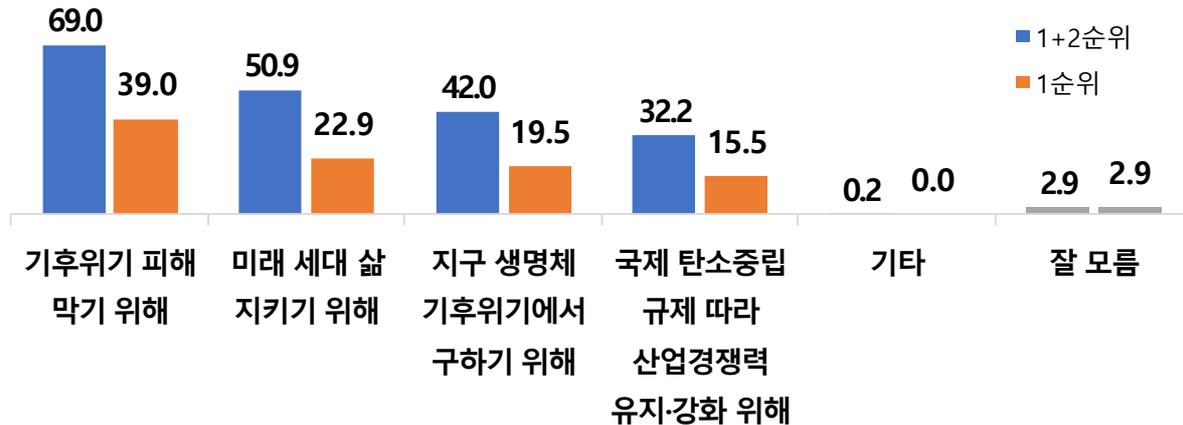
- ‘인구위기’ 응답은 남성 81.6%, 여성 82.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0.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 7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85.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2권역에서 79.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85.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79.7%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5.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한 이유: 1+2순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다 응답

QCO4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다음의 이유 중 두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n=1,000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 1, 2순위를 종합할 때, “자연재난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라는 응답은 69.0%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해”(50.9%), “지구에 사는 생명을 기후위기에서 구하기 위해”(42.0%), “국제적 탄소 중립 규제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32.2%)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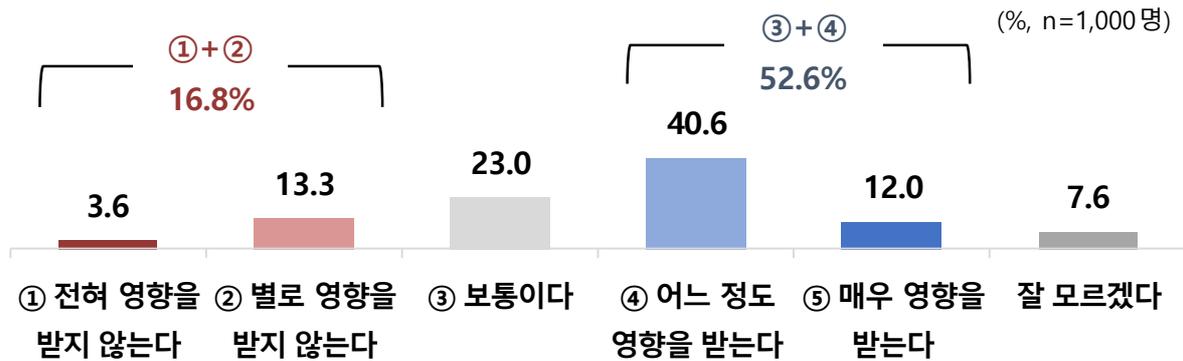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라는 응답은 남성 69.0%, 여성 68.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4.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40대에서 65.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72.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3권역에서 64.9%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7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주에서 66.7%, 진보 성향자 중에서 67.6%로 나타남.

6. 귀하의 자산 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절반가량, “영향 받는다” 응답

QC05.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산(주식 등 금융자산 및 토지·주택 등 부동산자산) 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기후변화가 개인의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응답은 16.8%(전혀 3.6%, 별로 13.3%)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응답은 52.6%(매우 12.0%, 어느 정도 40.6%)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6%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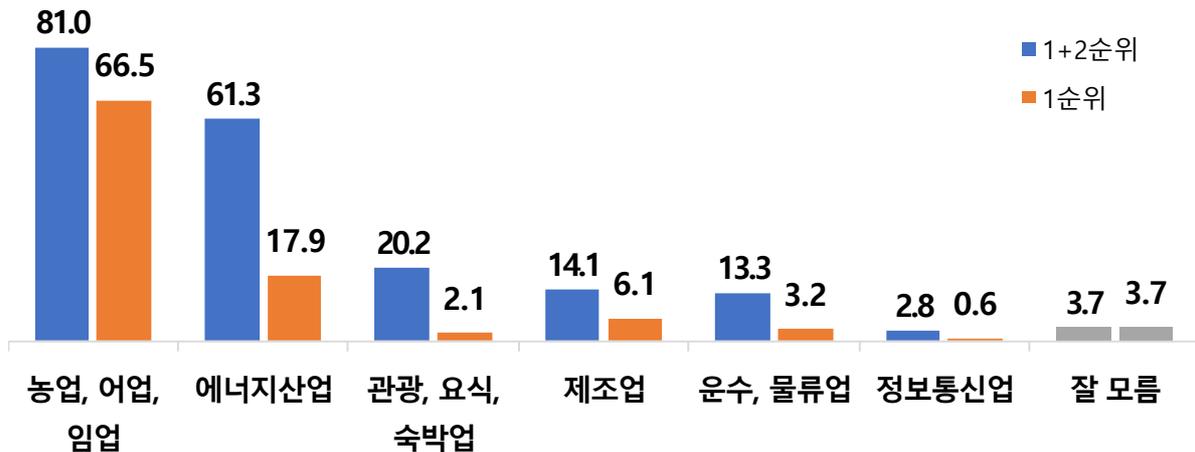
- “영향을 받는다”라는 응답은 남성 52.6%, 여성 52.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 56.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 48.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56.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1권역에서 48.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46.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7. 국내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1+2순위

농업, 어업, 임업 > 에너지산업 > 관광, 요식, 숙박업 順

QC0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향을 크게 받는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n=1,000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을 물어 1, 2순위를 종합할 때, '농업, 어업, 임업'이라는 응답은 81.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에너지산업'(61.3%), '관광, 요식, 숙박업'(20.2%)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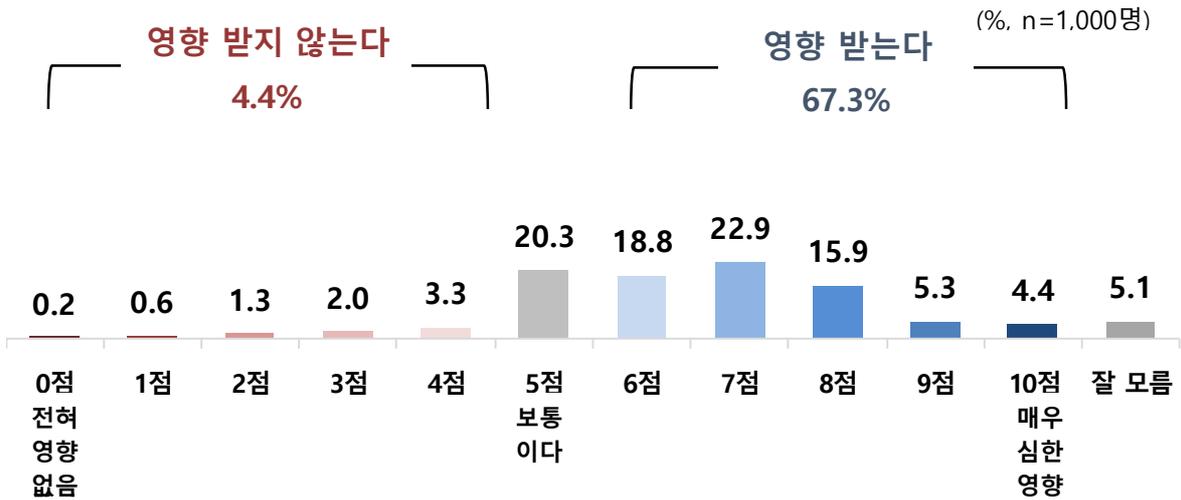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농업, 어업, 임업' 응답은 남성 78.1%, 여성 83.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1.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 74.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 82.4%, 인천 4권역에서 82.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2권역에서 7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84.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78.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8.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3명 중 2명, “영향 받는다”

QC07.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혹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심한 영향을 받는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역 산업 영향 정도를 물었을 때, “영향 받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4%, “영향 받는다”라는 응답은 67.3%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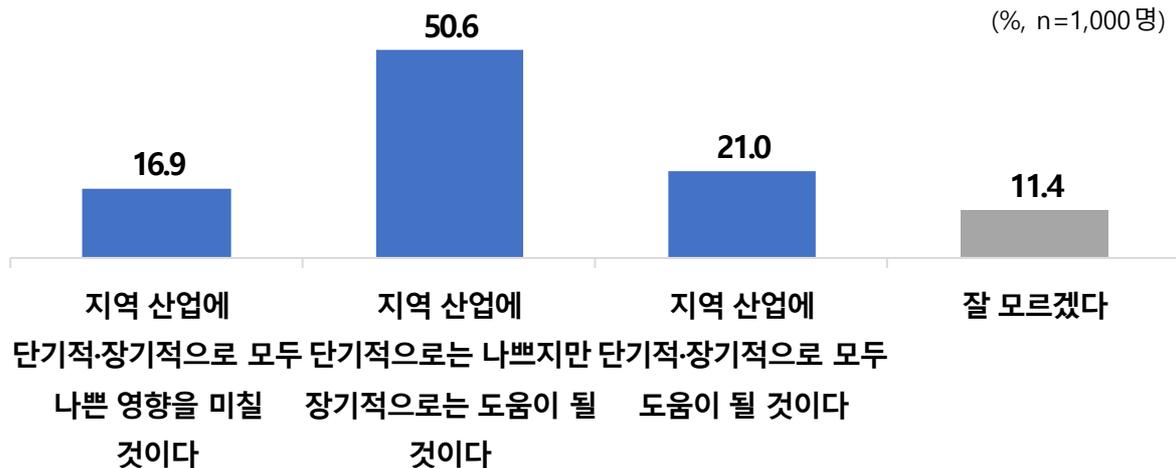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영향 받는다”라는 응답은 남성 67.5%, 여성 67.2%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72.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68.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71.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64.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8.1%,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62.4%, 보수 성향자 중에서는 62.9%로 나타남.

9. 탄소중립 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평가

절반가량, “장기적으로는 도움 될 것” 응답

QC08.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주장 중 무엇에 더 동의하십니까?



○ 전체 분석

-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장 중 공감하는 항목을 물었을 때, “지역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역 산업에 단기적·장기적으로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16.9%, “지역 산업에 단기적·장기적으로 모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0%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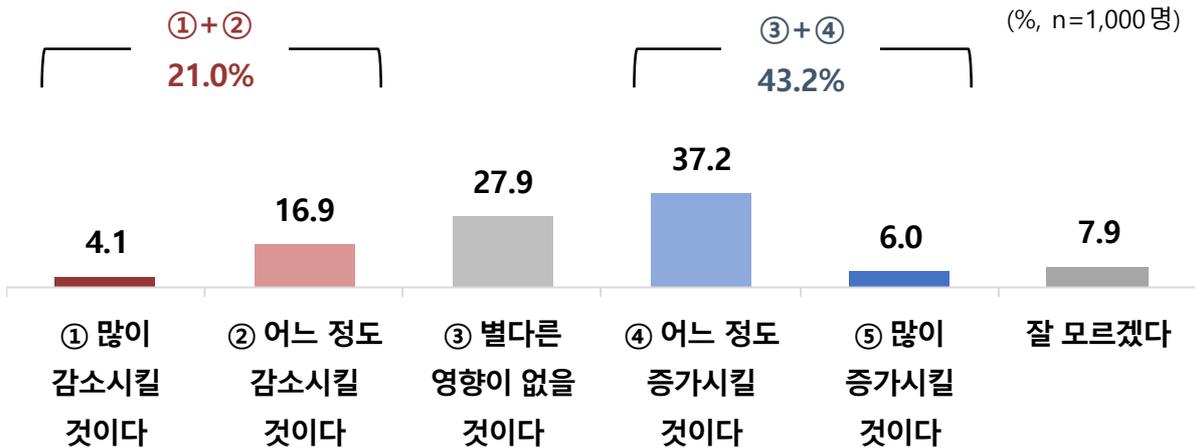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 도움 전망’ 응답은 남성 53.0% 여성 48.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54.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 4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54.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4권역에서 45.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자 중에서 4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0. 기후위기 극복 정책이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

5명 중 2명, “증가시킬 것이다”

QC09. 귀하께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정책이 일자리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극복 정책이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을 때,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응답 21.0%(많이 4.1%, 어느 정도 16.9%),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 43.2%(많이 6.0%, 어느 정도 37.2%)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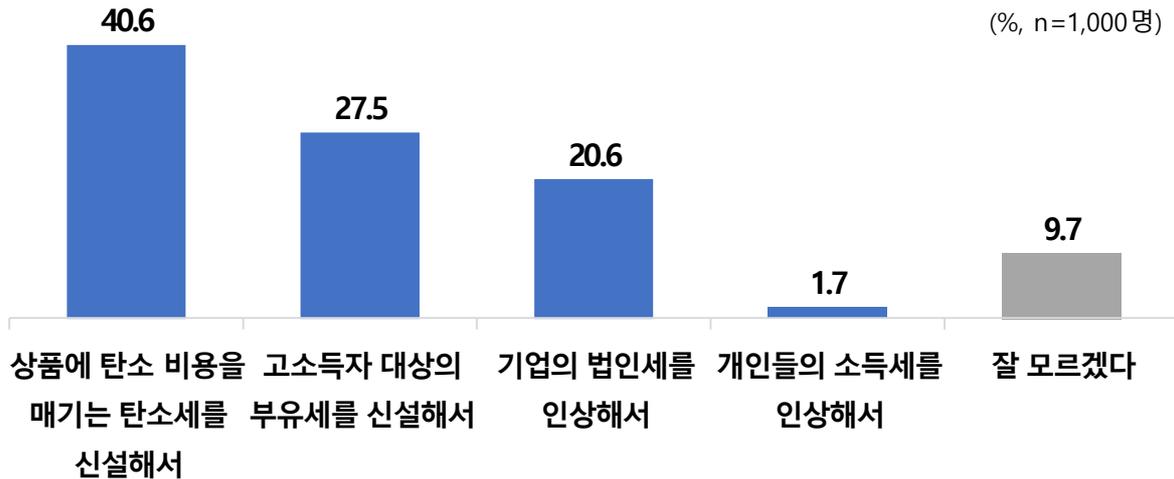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증가 전망’ 응답은 남성 40.7%, 여성 45.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48.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 40.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45.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2권역에서 42.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자 중에서 33.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마련 방법

5명 중 2명, '탄소세 신설' 응답

QC10.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혹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심한 영향을 받는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예산 자원 마련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물었을 때, "상품에 탄소 비용을 매기는 탄소세를 신설해서"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고소득자 대상의 부유세를 신설해서"(27.5%),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서"(20.6%), "개인들의 소득세를 인상해서"(1.7%)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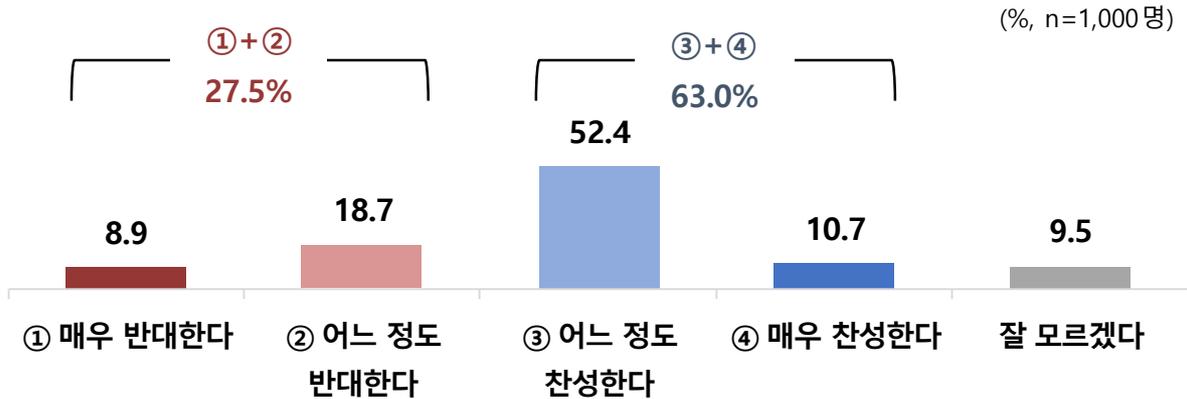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탄소세 신설' 응답은 남성 39.8%, 여성 41.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5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25.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4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1권역에서 37.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53.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35.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12.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제안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C11.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귀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탄소배출 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요금,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반대한다"라는 응답 27.5%(매우 8.9%, 어느 정도 18.7%), "찬성한다"라는 응답 63.0%(매우 10.7%, 어느 정도 52.4%)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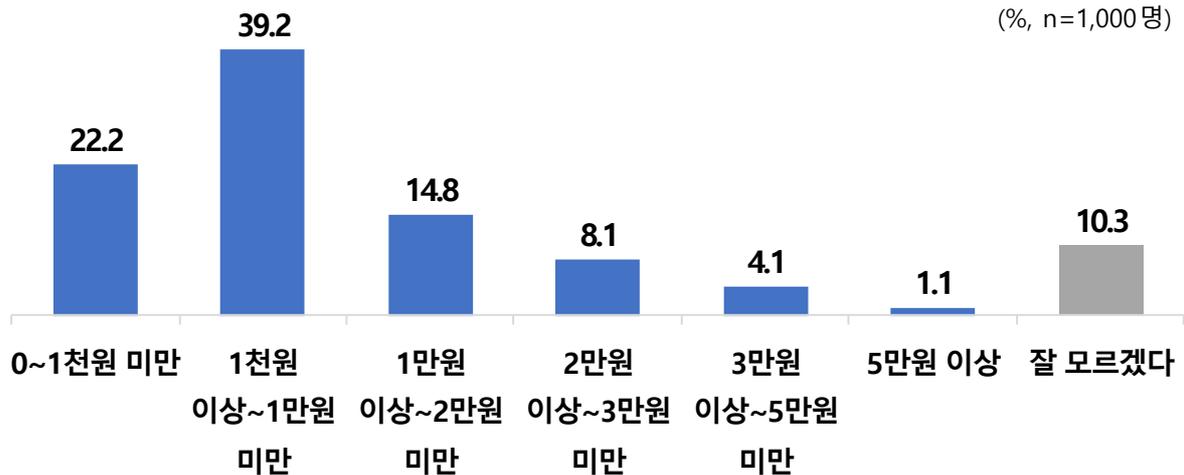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 응답은 남성 61.6%, 여성 64.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51.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66.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3권역에서 60.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9.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56.7%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13. 기후위기 대응 자원 마련을 위해 매달 추가 지불 가능한 금액

5명 중 2명 가까이, '1천원 이상~1만원 미만' 응답

QC12.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면, 귀하께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대응 자원 마련을 위한 월 단위 추가 지불 의향을 물었을 때, '1천원 이상~1만원 미만'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0~1천원 미만'(22.2%), '1만원 이상~2만원 미만'(14.8%), '2만원 이상~3만원 미만'(8.1%)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임.

○ 특성별 분석

- '1천원 이상~1만원 미만' 응답은 남성 36.5%, 여성 41.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 29.7%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4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2권역에서 35.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41.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진보 성향자 중에서 37.7%, 중도 성향자 중에서 3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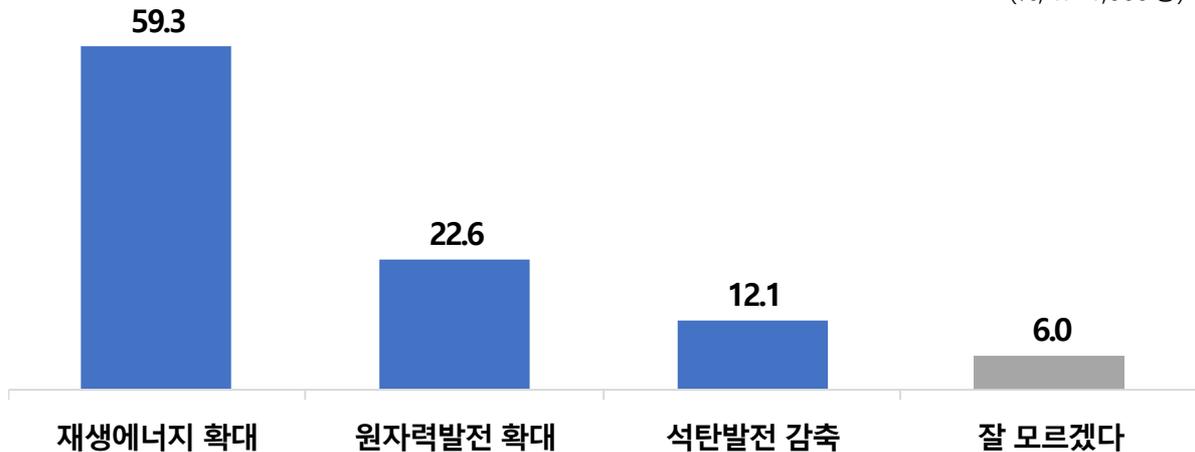
PART C. 기후위기 관련 정책 인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

5명 중 3명 가까이, '재생 에너지 확대' 응답

QD01 정부는 전력생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원전확충, 재생에너지 확충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정책 중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n=1,000명)



○ 전체 분석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원자력발전 확대'(22.6%), '석탄발전 감축'(12.1%)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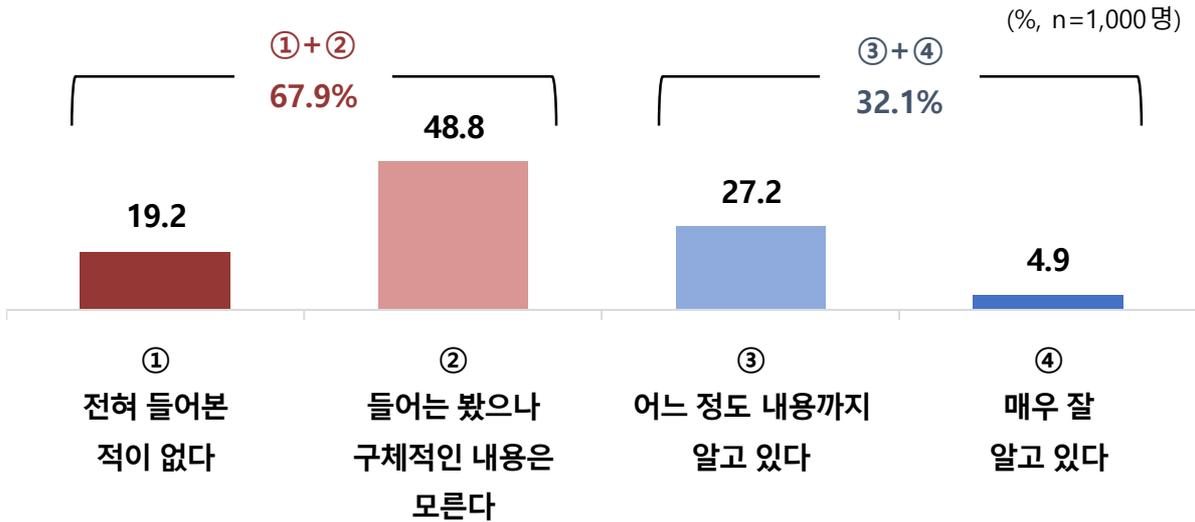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재생에너지 확대' 응답은 남성 48.4%, 여성 70.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46.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67.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2권역에서 52.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0.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자 중에서 38.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2.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 권고'에 대한 인지 여부

3명 중 2명 가까이, '비인지'

QD02.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선진국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 퇴출 권고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었을 때, '비인지' 응답은 67.9%(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19.2%,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48.8%), '인지' 응답은 32.1%(매우 잘 알고 있다 4.9%,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27.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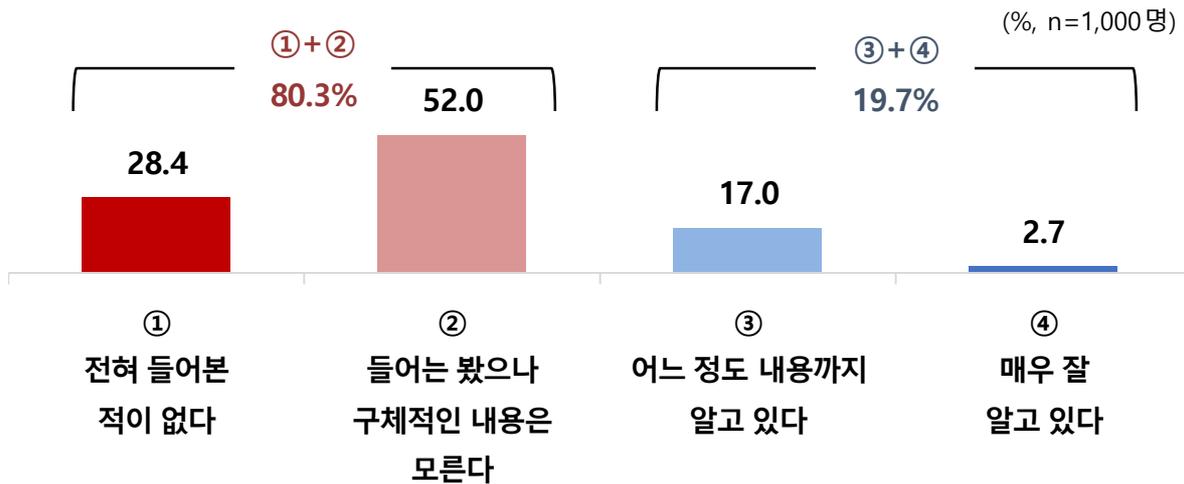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인지' 응답은 남성 41.7%, 여성 22.6%로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큼.
-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40대에서 26.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31.3%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39.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26.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3. 정부의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 계획' 인지 여부

5명 중 4명, '비인지'

QD03.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총 60여기의 석탄발전소 중에서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정부의 2026년도까지 석탄발전소 28기 단계적 폐쇄 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었을 때, '비인지' 응답은 80.3%(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28.4%,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52.0%), '인지' 응답은 19.7%(매우 잘 알고 있다 2.7%,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17.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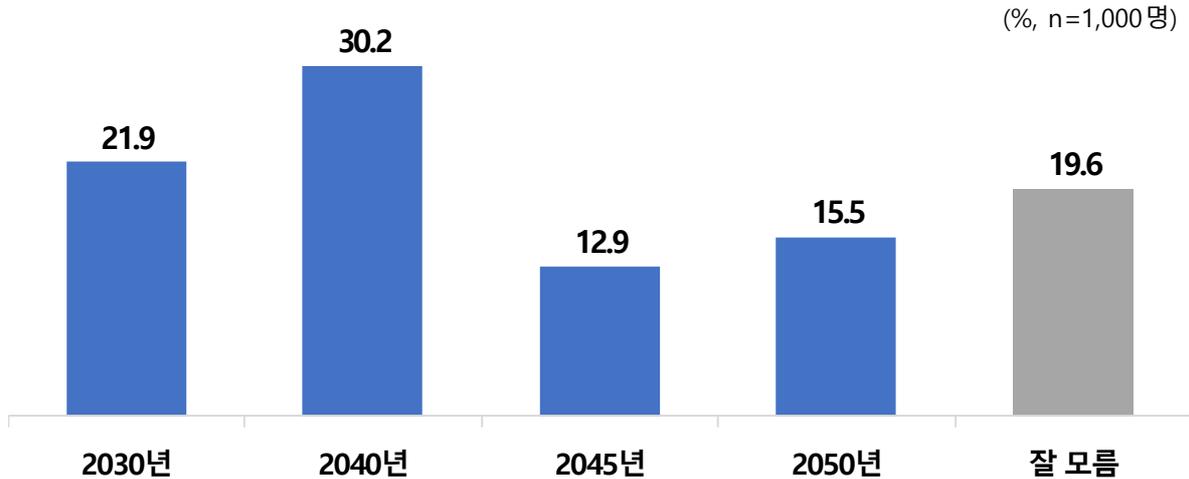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인지' 응답은 남성 26.6%, 여성 13.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20.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19.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20.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1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23.4%, 중도 성향자 중에서 17.7%, 보수 성향자 중에서 18.6%로 나타남.

4. 국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

'2040년' 응답이 가장 많아

QD04.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7조("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시점이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국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에 적당한 시점을 물었을 때, '2040년' 응답이 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030년'(21.9%), '2050년'(15.5%), '2045년'(12.9%)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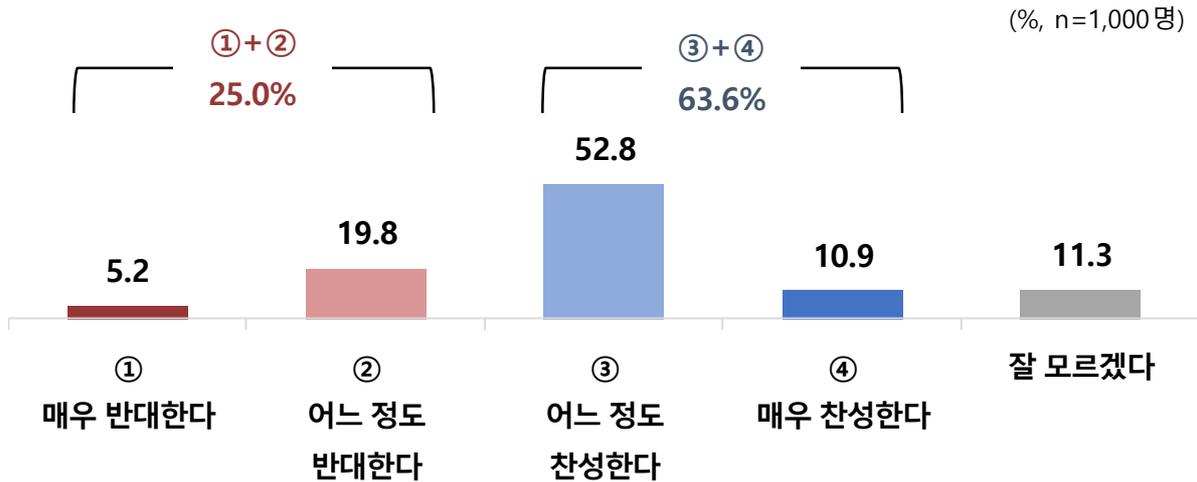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2040년'은 남성 30.0%, 여성 30.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25.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2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27.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5.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D05.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스(LNG)발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발전도 석탄발전의 절반에 가까운(45.2%)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의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한다"라는 응답 29.5%(매우 5.2%, 어느 정도 19.8%), "찬성한다"라는 응답 63.6%(매우 10.9%, 어느 정도 52.8%)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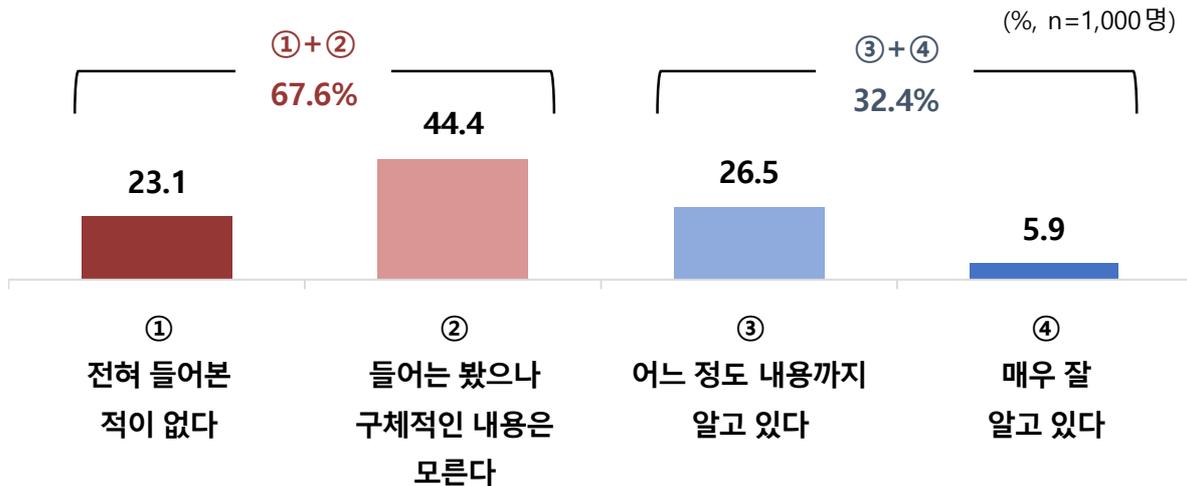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 응답은 남성 65.8%, 여성 61.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0.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56.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69.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6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6.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6.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계획 인지 여부

3명 중 2명, '비인지'

QD06. 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를 새로 건설하고,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정부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및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었을 때, '비인지' 67.6%(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23.1%,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44.4%), '인지' 32.4%(매우 잘 알고 있다 5.9%,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26.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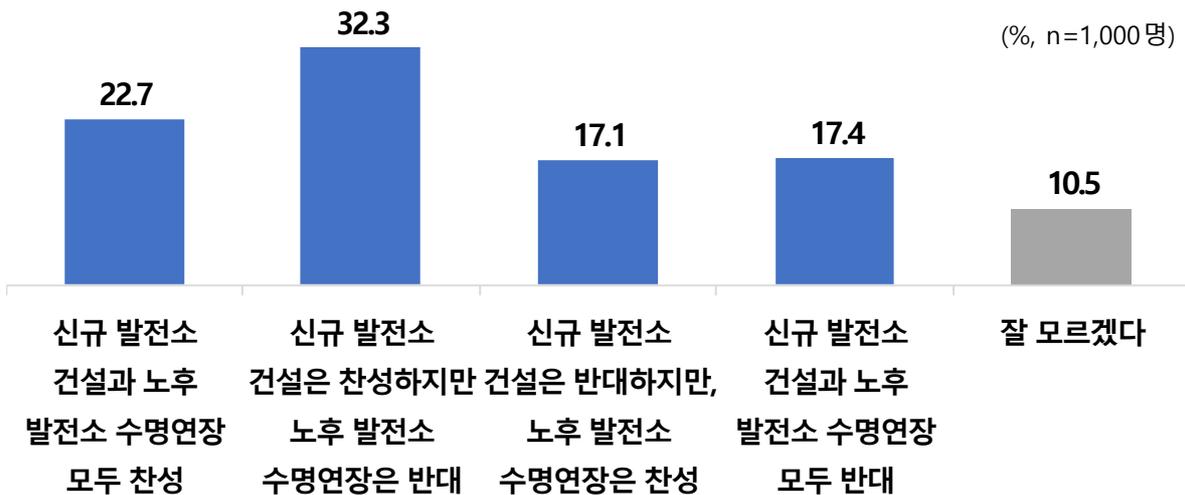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인지' 응답은 남성 43.5%, 여성 21.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25.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29.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2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7.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추진 계획 찬반

10명 중 3명, "신규 발전소 건설은 찬성,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은 반대"

QD07. 귀하께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신규 발전소 건설과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모두 찬성"이라는 응답은 22.7%, "신규 발전소 건설은 찬성하지만,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은 반대" 32.3%, "신규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지만,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은 찬성" 17.1%, "신규 발전소 건설과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모두 반대" 17.4%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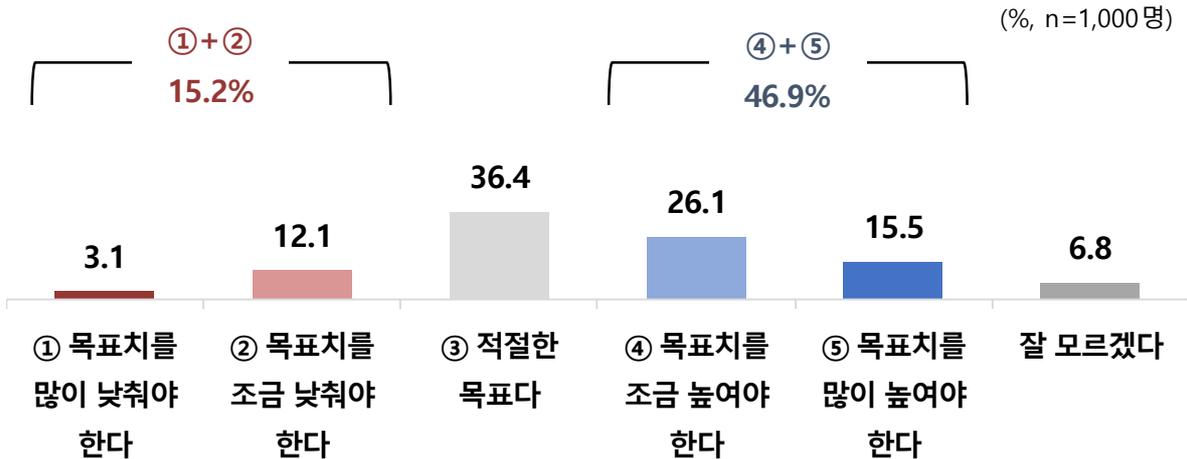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신규 발전소 건설 찬성,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반대" 응답은 남성 34.8%, 여성 29.8%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50대에서 28.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28.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25.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8.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에 대한 인식

2명 중 1명 가까이, “높여야 한다” 응답

QD08.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8.29%입니다. 같은 해 기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8.1%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1.6%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높여야 한다고, 혹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에 대해 물었을 때, “낮춰야 한다”라는 응답은 15.2%(많이 3.1%, 조금 12.1%)로 나타남.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46.9%(많이 15.5%, 조금 26.1%)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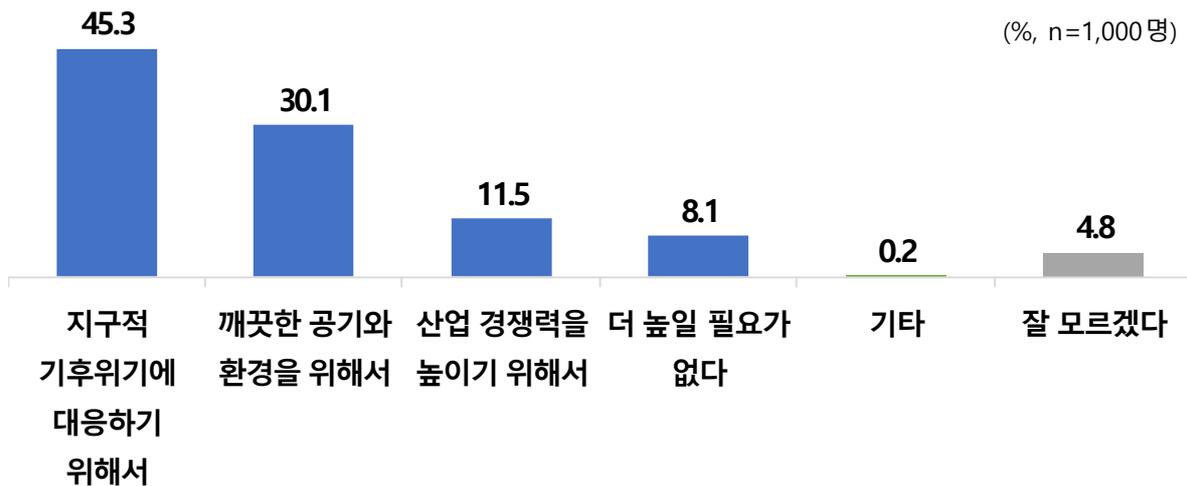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높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44.7%, 여성 38.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51.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21.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47.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38.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6.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34.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9.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

절반가량,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응답

QD09. 만약 우리나라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깨끗한 공기와 환경을 위해서”(30.1%),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11.5%) 순임.
- 더 높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8.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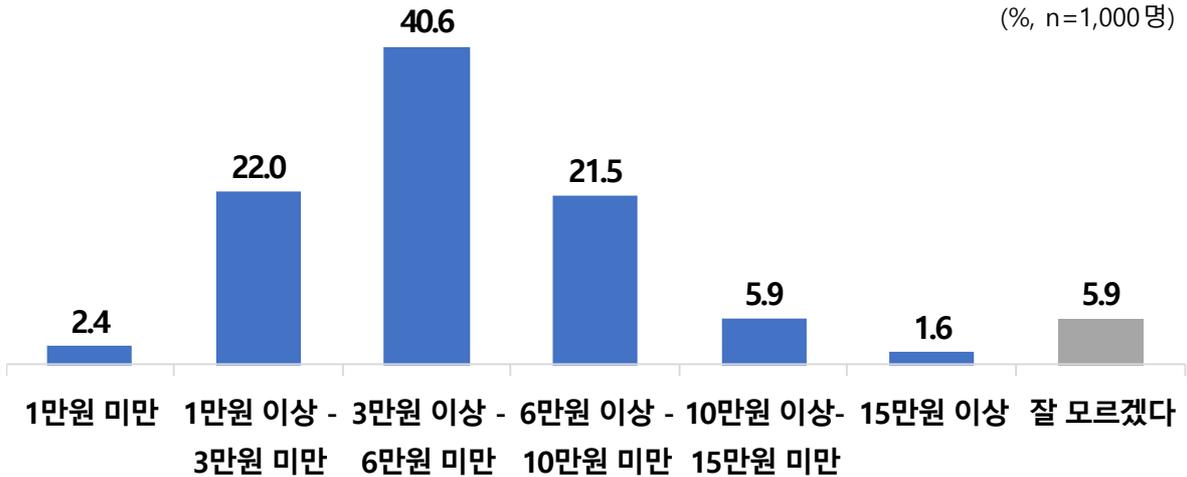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남성 41.0%, 여성 49.6%로 성별에 따른 격차를 보임.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5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3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50.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37.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3.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39.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0. 월간 가구 평균 전기요금

'3만원 이상~6만원 미만' 응답이 가장 많아

QD10. 평소 귀댁에 부과되는 월간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전체 분석

- 부과되는 월간 가구 평균 전기요금을 물었을 때, '3만원 이상~6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40.6%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그다음으로 '1만원 이상~3만원 미만'(22.0%), '6만원 이상~10만원 미만'(21.5%),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5.9%), '1만원 미만'(2.4%), '15만원 이상'(1.6%), "잘 모르겠다"(5.9%)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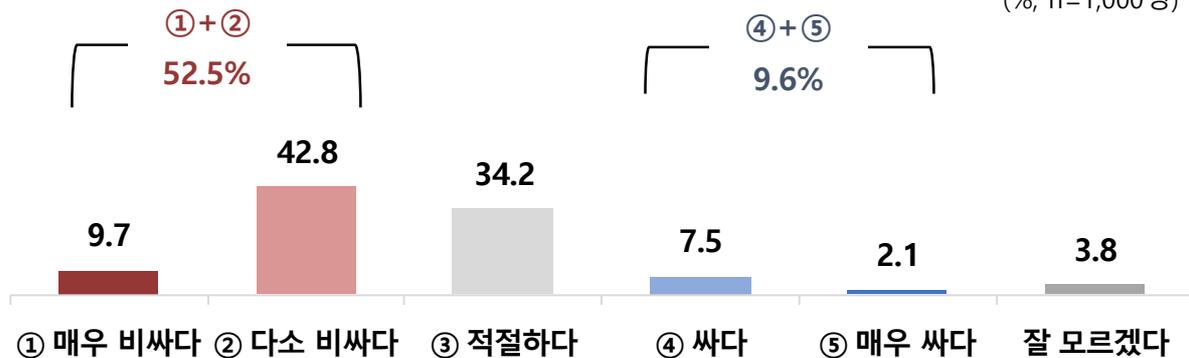
- '3만원 이상~6만원 미만' 응답은 남성 39.8%, 여성 41.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2%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18~29세에서 30.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35.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45.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37.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1.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

2명 중 1명 가까이, “비싸다”

QD11. 귀하께서는 평소 사용하시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싸다고 혹은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 n=1,000명)



○ 전체 분석

- 평소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 “싸다”라는 응답은 9.6%(매우 2.1%, 싸다 7.5%)로 나타났으며, “비싸다”라는 응답은 52.5%(다소 42.8%, 매우 9.7%)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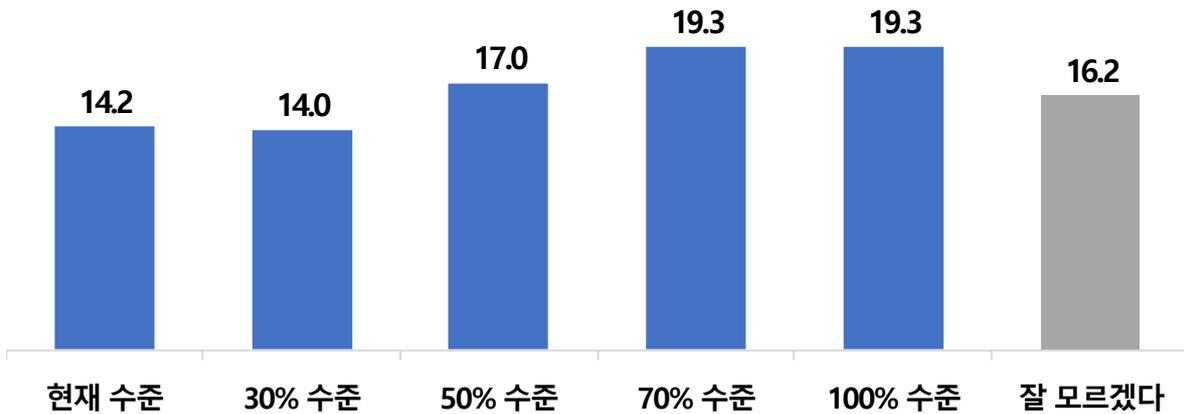
- “싸다”라는 응답은 남성 12.6%, 여성 6.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12.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40대에서 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11.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6.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12.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2. 광역시·도의 바람직한 수준의 전력자립도

'70% 수준'과 '100% 수준' 응답 대등

QD12. 사용하는 전기량 대비 생산하는 전기량의 비율(생산전기량/소비전기량)을 '전력자립도'라고 합니다. 전력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이 24.3%로 가장 높고, 대전이 2%로 가장 낮습니다. (2021년 기준) 귀하께서는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가 다음 중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n=1,000명)



○ 전체 분석

- 광역시·도의 바람직한 전력자립도 수준을 물었을 때, '70% 수준'이라는 응답과 '100% 수준'이라는 응답이 19.3%로 나타났으며, '50% 수준'(17.0%), '현재 수준'(14.2%), '30% 수준'(14.0%)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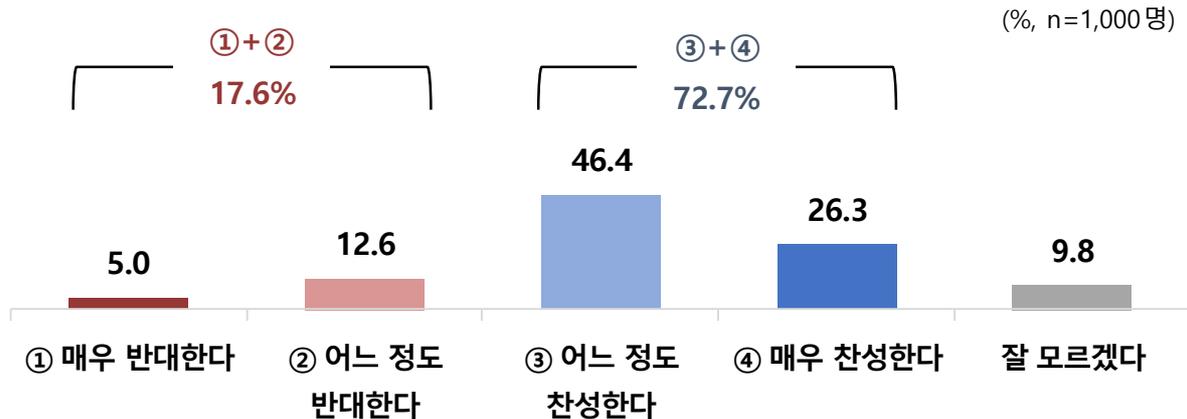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70% 수준'이라는 응답은 남성 21.7%, 여성 16.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20.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1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21.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17.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 17.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3.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단가 차등화 주장에 대한 찬반

10명 중 7명, "찬성한다"

QD13. 지역별 전력자급률(특정 지역이 스스로 사용할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율)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력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서울, 경기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단가를 책정하고, 자급률이 높은 지역(인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단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단가 차등화 주장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17.6%(매우 5.0%, 어느 정도 12.6%),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72.7%(매우 26.8%, 어느 정도 46.4%)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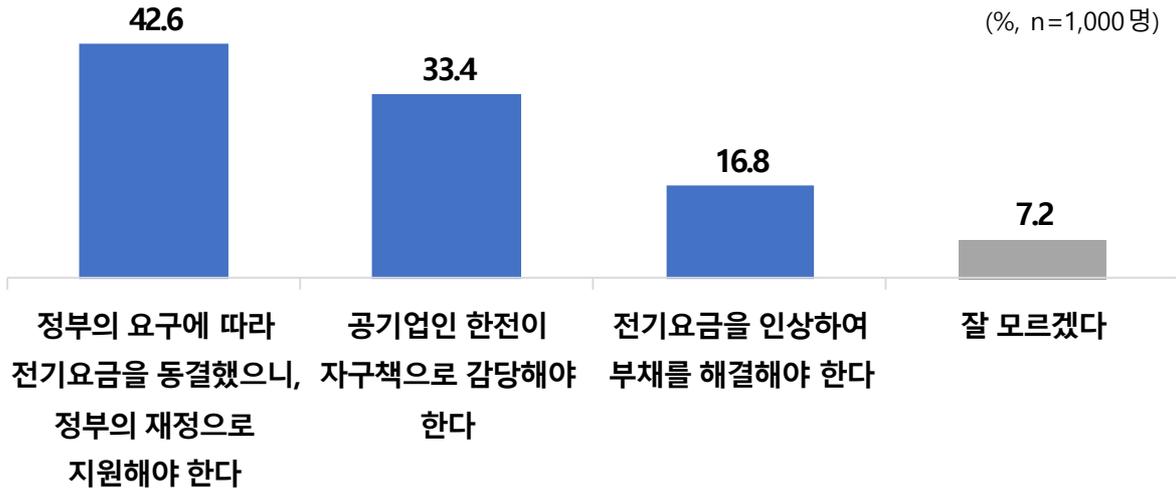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은 남성 71.7%, 여성 73.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6.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6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74.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67.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76.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6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4.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

5명 중 2명,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응답

QD14.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현재 205조원(2023년 9월 기준)이고 하루에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은 130억원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전력의 부채 누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한국전력의 부채 누적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정부의 요구의 따라 전기요금을 동결했으니,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2.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공기업인 한전이 지구책으로 감당해야 한다”(33.4%),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16.8%)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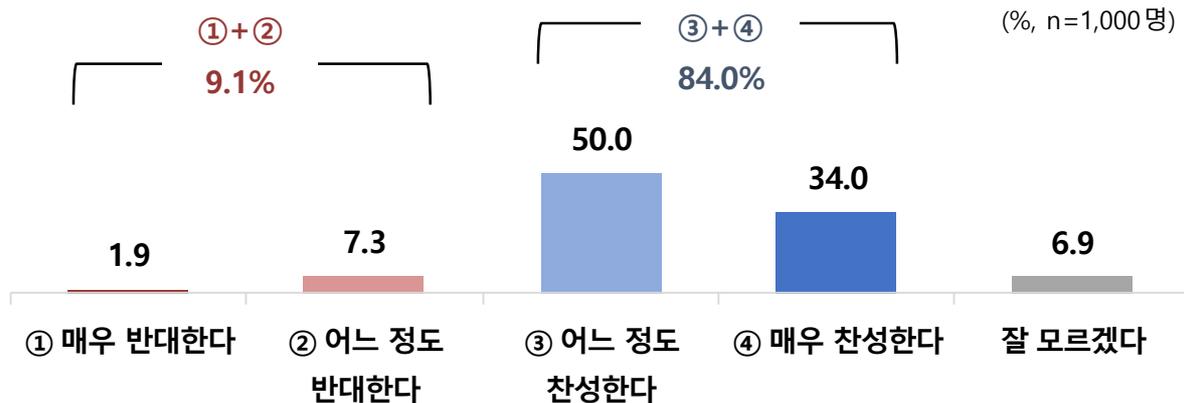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42.7%, 여성 42.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47.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38.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40.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1.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3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5. 국내 대형 주차장 내 태양광발전 설비 의무 설치에 대한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D15. 프랑스에서는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국내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의무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9.1%(매우 1.9%, 어느 정도 7.3%),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84.0%(매우 34.0%, 어느 정도 50.0%),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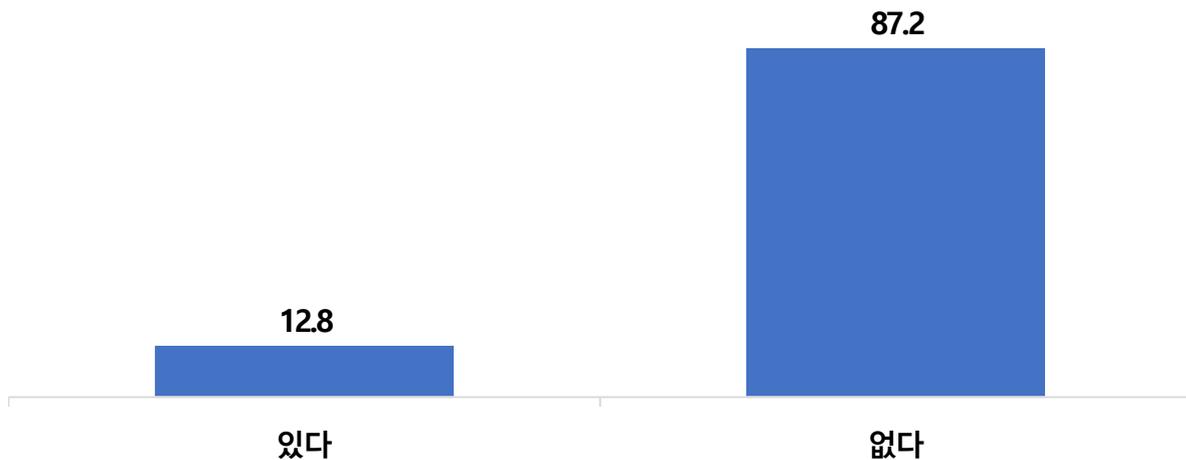
- ‘찬성’은 남성 82.6%, 여성 85.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6.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7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87.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79.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92.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7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6.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 경험

10명 중 1명, “생산 경험 있다”

QD16. 귀하께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n=1,000명)



○ 전체 분석

- 재생에너지 생산 경험을 물었을 때, “있다”라는 응답이 12.8%, “없다”라는 응답이 87.2%로 조사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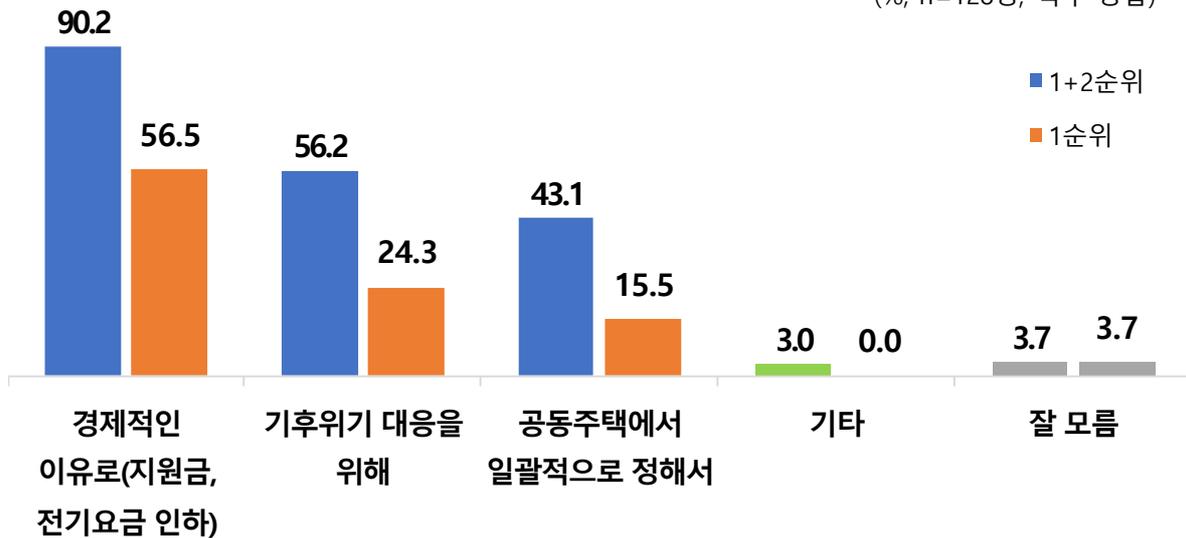
-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남성 16.7%, 여성 8.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16.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1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18.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9.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1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7.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설치한 계기: 1+2순위

"경제적인 이유로"라는 응답 가장 많아

QD17. (QD16에서 1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고려하셨던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 n=128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재생에너지 생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128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한 계기를 물어 1, 2순위를 종합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라는 응답이 90.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56.2%), "공동주택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43.1%)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로 조사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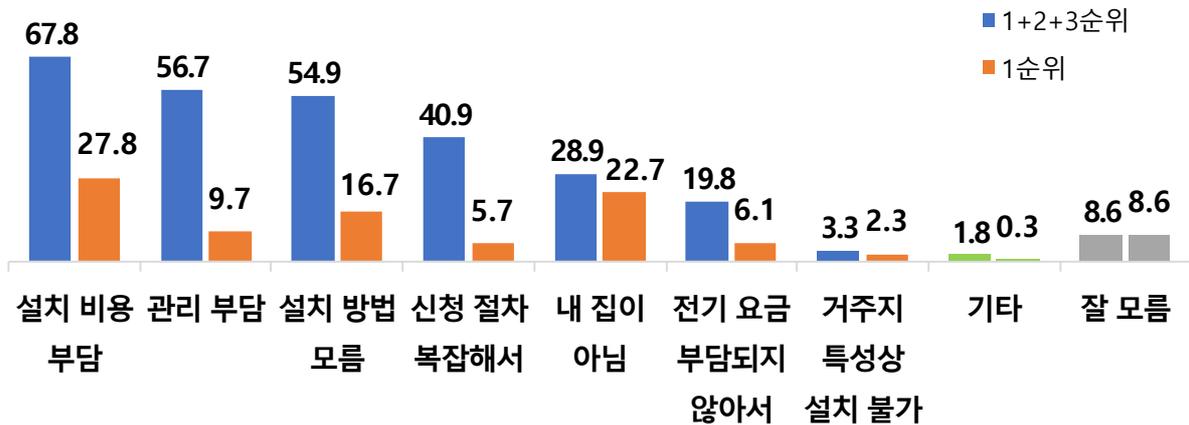
- "경제적인 이유로"라는 응답은 남성 89.2%, 여성 92.1%로 나타남.

18.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설치한 적 없는 이유: 1+2+3순위

설치 비용 부담 > 관리 부담 > 설치 방법 모름 순

QD18. (QD16에서 2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고려하셨던 순위대로 세 개를 선택해 주세요.

(%, n=872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재생에너지 생산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872명에게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1, 2, 3순위를 종합할 때, "설치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관리가 부담되어서"(56.7%), "설치 방법을 몰라서"(54.9%), "내 집이 아니어서"(40.9%),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28.9%)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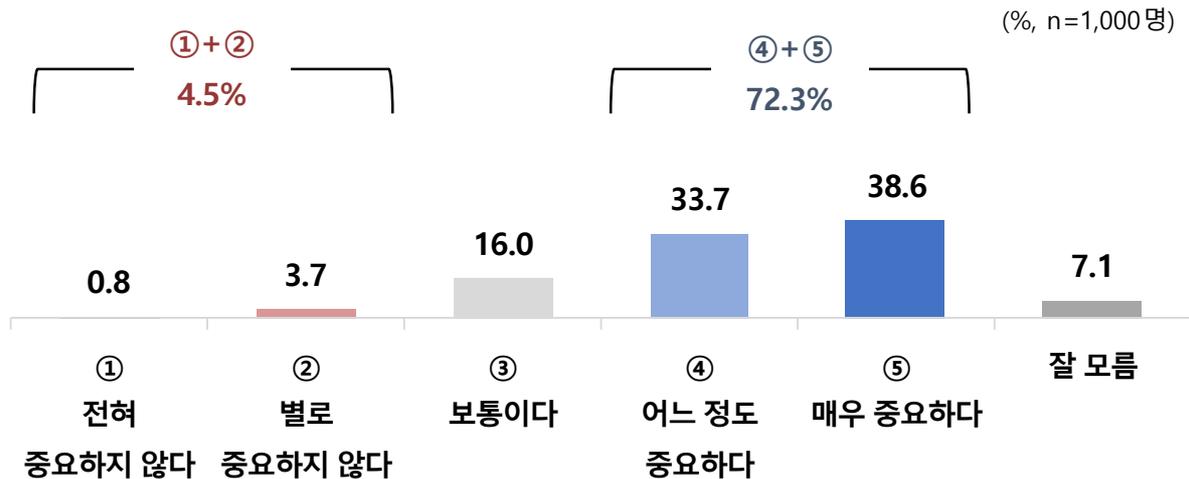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설치비용 부담' 응답은 남성 67.1%, 여성 68.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73.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6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6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69.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6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19. 국내 기업의 'RE100' 동참 중요성

10명 중 7명, "중요하다"

QD19. 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사용하는 'RE100' 약속이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국내 기업의 RE100 동참 중요성을 물었을 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4.5%(별로 3.7%, 전혀 0.8%),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72.3%(매우 38.6%, 어느 정도 33.7%)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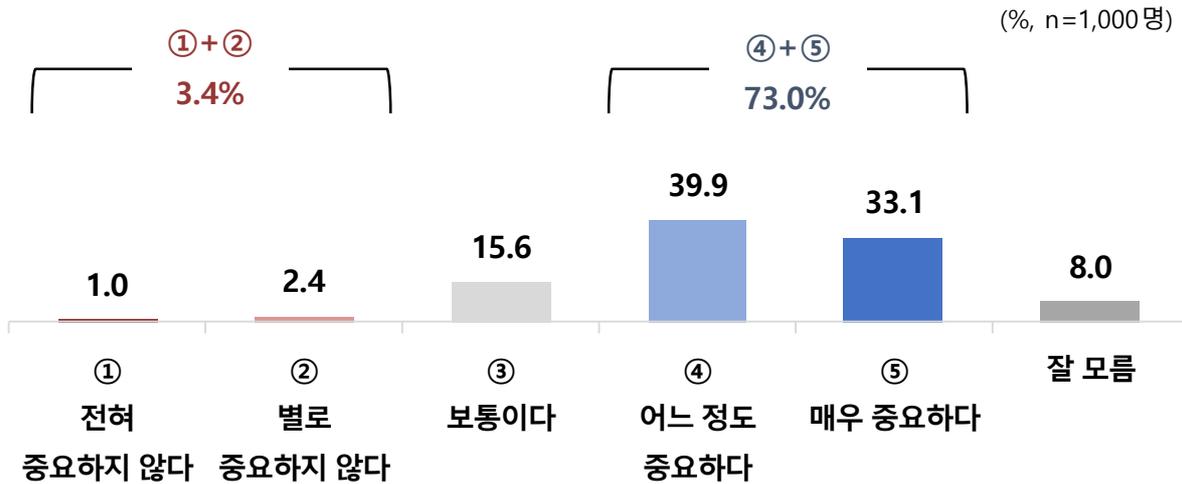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남성 69.9%, 여성 74.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3.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6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77.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69.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3.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66.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0. 국내 기업 'RE100' 실천의 산업 경쟁력 강화 중요성

10명 중 7명, "중요하다"

QD20. 정부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6%에서 11.4%로 줄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줄인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국내 기업의 RE100 실천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을 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4%(별로 2.4%, 전혀 1.0%),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73.0%(매우 33.1%, 어느 정도 39.9%)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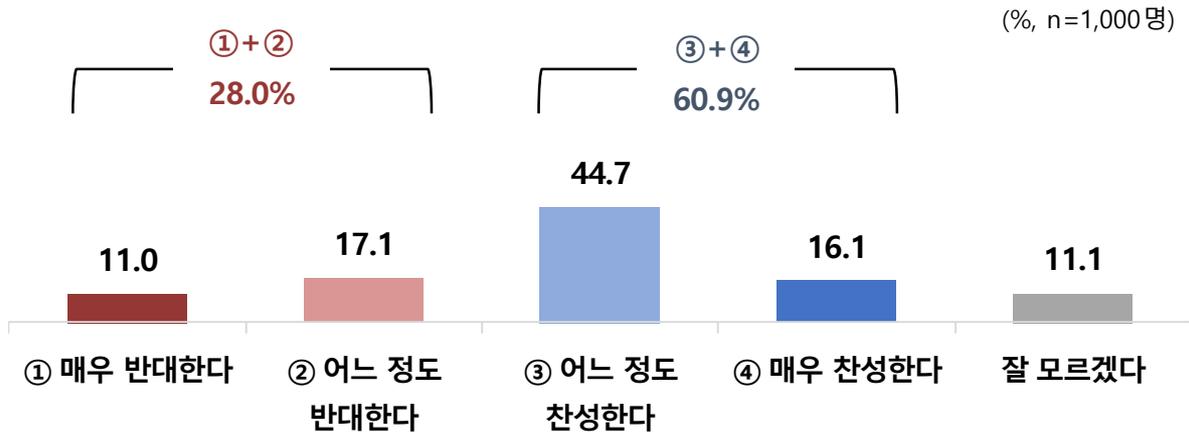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남성 72.1%, 여성 73.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3.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5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74.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7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2.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68.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1.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대한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D21. 정부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6%에서 11.4%로 줄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줄인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줄인 것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28.0%(매우 11.0%, 어느 정도 17.1%),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60.9%(매우 16.1%, 어느 정도 44.7%),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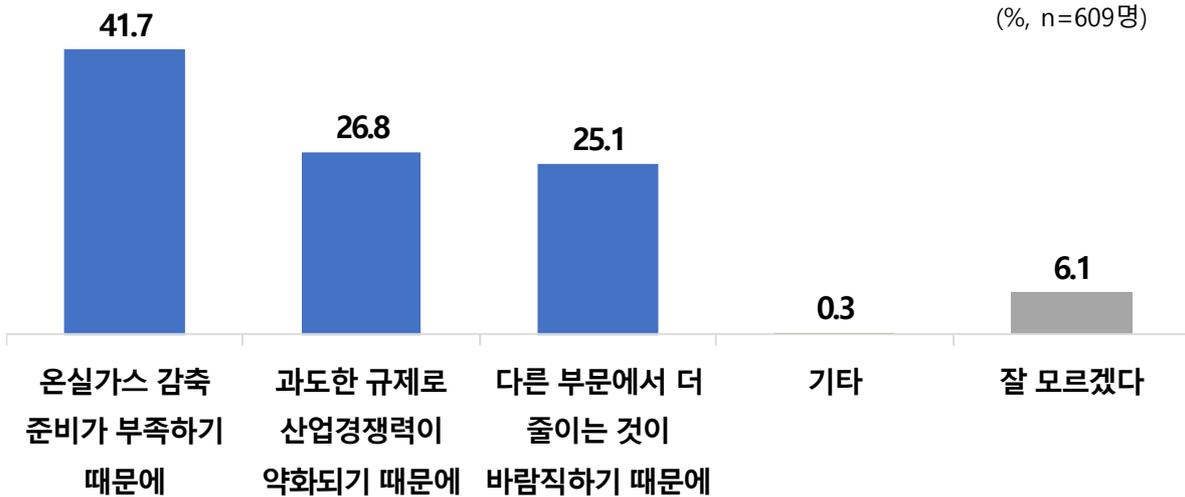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64.1%, 여성 57.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 68.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40대에서 5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64.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5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70.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22.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 가장 많아

QD22. (QD21에 3, 4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전체 분석

-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찬성하는 응답자 60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41.7%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과도한 규제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26.8%, “다른 부문에서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25.1%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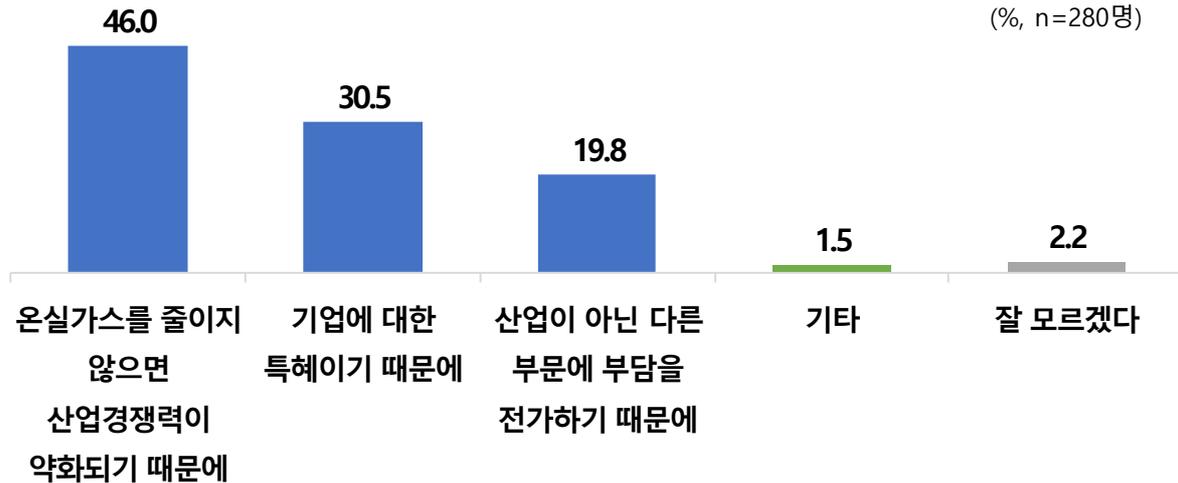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 준비 부족’ 응답은 남성 39.0%, 여성 44.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30대에서 35.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38.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3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3.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라는 응답 가장 많아

QD23. (QD21에 1, 2번 응답자) 귀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n=280명)



○ 전체 분석

-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반대하는 응답자 28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30.5%, “산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19.8%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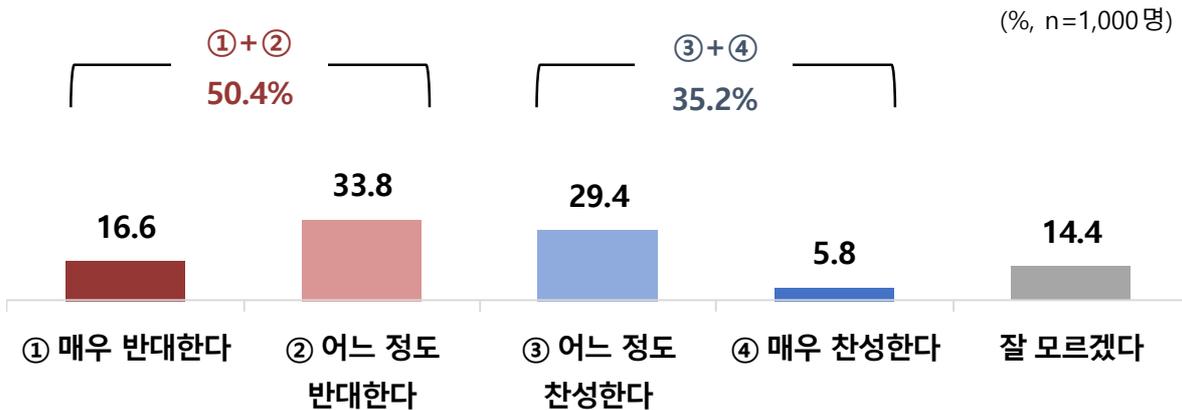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남성 48.8%, 여성 43.4%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58.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36.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36.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4.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종료 찬반

절반가량, "반대한다"

QD24.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을 할 때, 최대 3~4%의 저리로 이자를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을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종료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종료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50.4%(매우 16.6%, 어느 정도 33.8%)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35.2%(매우 5.8%, 어느 정도 29.4%)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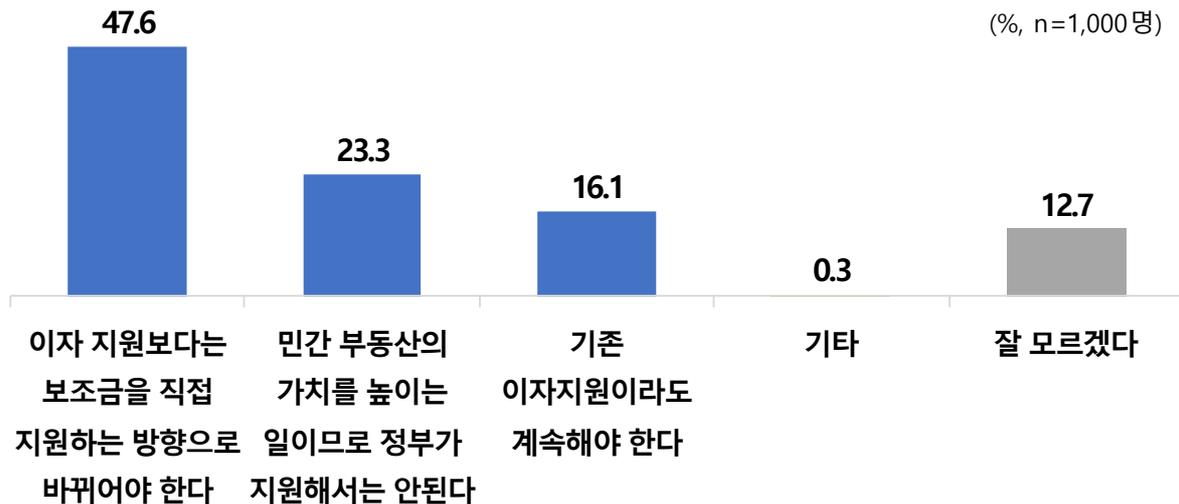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35.9%, 여성 34.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32.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31.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 2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5.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개선 방향

절반가량, "보조금 직접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응답

QD25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물었을 때, "이자 지원보다는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민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므로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된다"(23.3)%, "기존 이자지원이라도 계속해야 한다"(16.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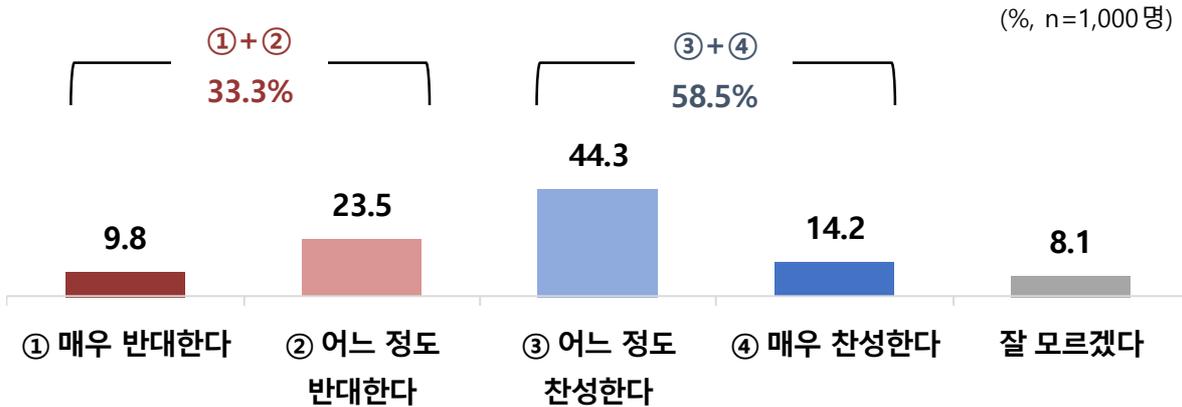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보조금 직접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45.3%, 여성 49.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38.2%로 가장 낮은 비율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48.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4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7.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4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6.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대한 찬반

5명 중 3명 가까이, "찬성한다"

QD26. 우리나라에는 총 2,587만대의 차량이 등록(2023년)되어 있어, 총인구 2명 중 1명이 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적정대수를 정하고 차량등록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적정대수를 정하고 차량등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3.3%(매우 9.8%, 어느 정도 23.5%),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58.5%(매우 14.2%, 어느 정도 44.3%)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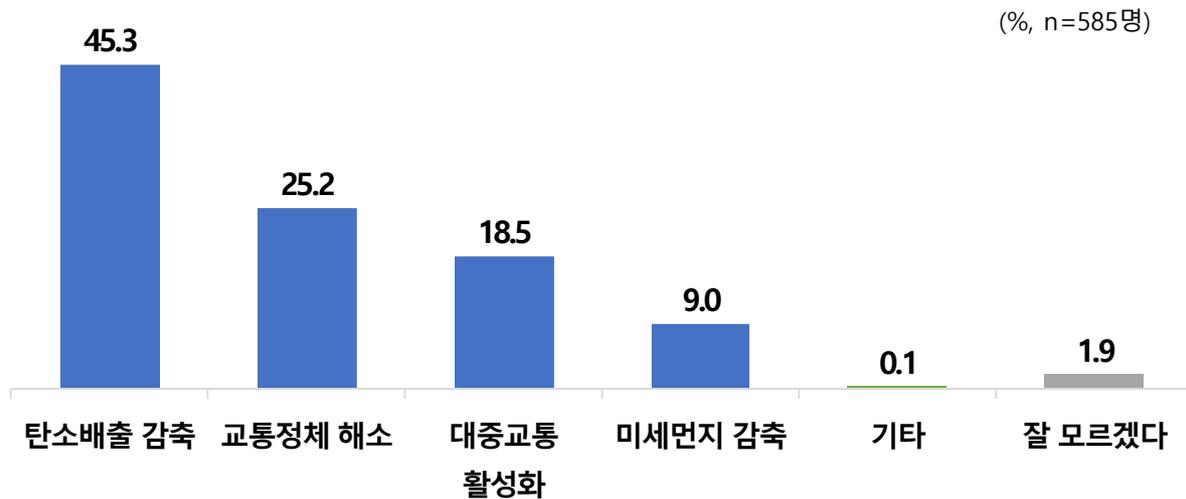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은 남성 52.0%, 여성 65.0%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6.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50대에서 52.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62.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5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1.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2.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7.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

2명 중 1명 가까이, '탄소배출 감축'이라고 응답

QD27. (QD26에 3, 4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전체 분석

-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자 58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탄소배출 감축' 응답은 45.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교통정체 해소'(25.2%), '대중교통 활성화'(18.5%), '미세먼지 감축'(9.0%)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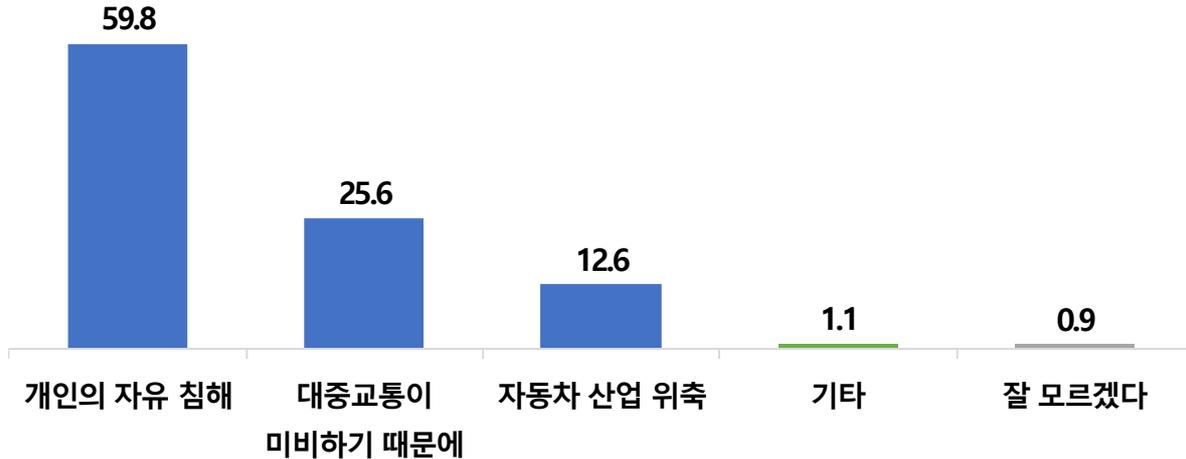
-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응답은 남성 37.7%, 여성 51.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이상에서 73.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3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47.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42.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38.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8.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반대하는 이유

“개인의 자유 침해” 응답 가장 많아

QD28. (QD26에 1, 2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n=333명)



○ 전체 분석

-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반대하는 응답자 33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응답은 59.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대중교통이 미비하기 때문에” (25.6%), “자동차 산업 위축”(12.6%)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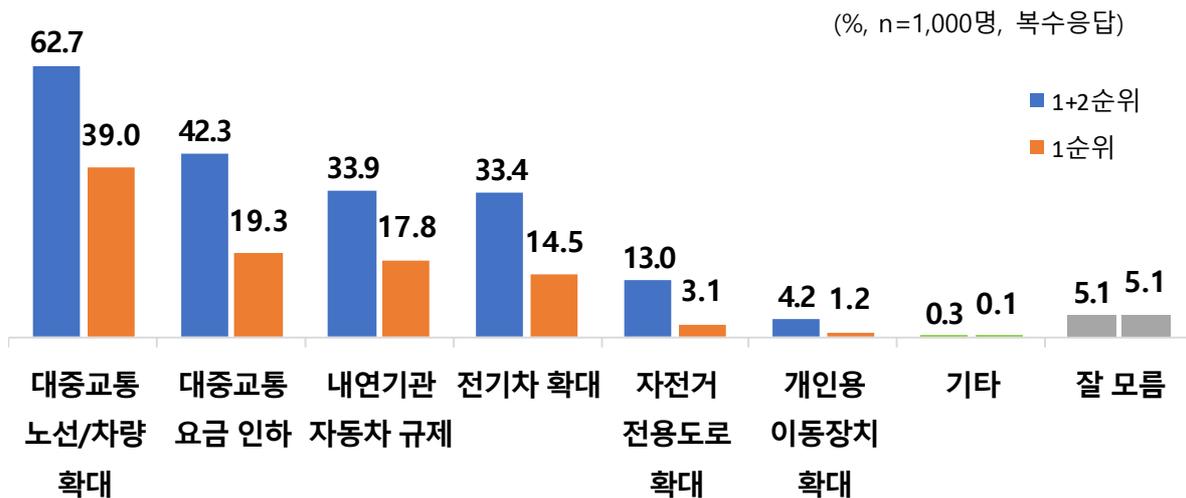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응답은 남성 59.0%, 여성 61.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6.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49.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67.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56.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69.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9.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 1+2순위

“대중교통 노선과 차량의 확대” 응답 가장 많아

QD29. 귀하께서는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전체 분석

-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을 물어 1, 2순위를 종합할 때, “대중교통 노선/차량 확대”라는 응답은 62.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하” 42.3%,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33.9%, “전기차 확대” 33.4%,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13.0%, “개인용 이동장치 확대” 4.2%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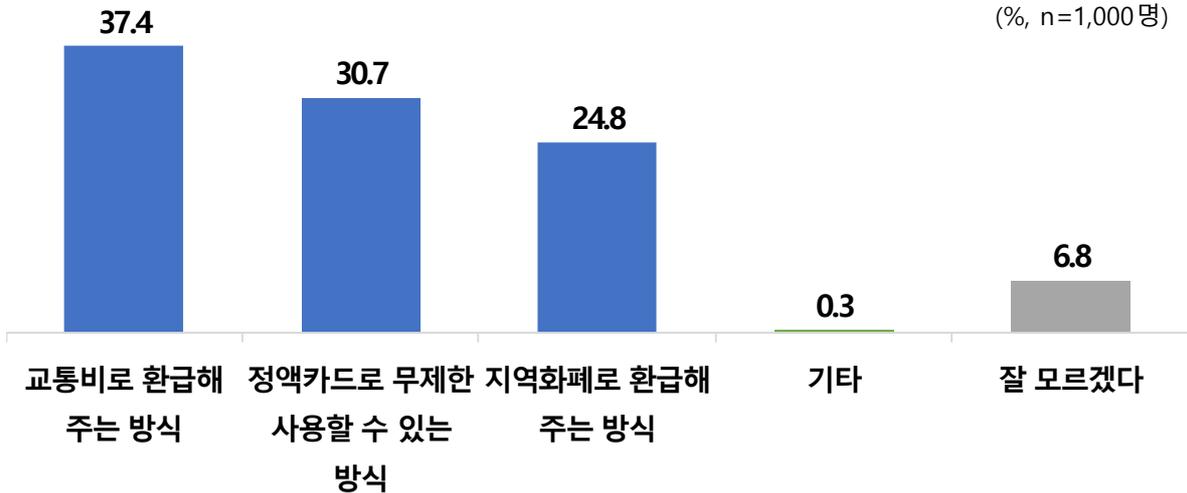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대중교통 노선과 차량 확대”라는 응답은 남성 41.2%, 여성 64.1%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7.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56.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68.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59.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4.1%, 중도 성향자 중에서 61.5%, 보수 성향자 중에서 63.1%로 나타남.

30. 선호하는 대중교통 'K-패스' 운영 방식

교통비 환급 > 정액카드 무제한 사용 > 지역화폐 환급 순

QD30.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20~30%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교통비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연간 최대 21만 6천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의 정액카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동백패스'는 월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4만 5천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전국단위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다음 제도 중 무엇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선호하는 k-패스 운영 방식을 물었을 때, "교통비로 환급해주는 방식"라는 응답은 37.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정액카드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30.7%,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 24.8%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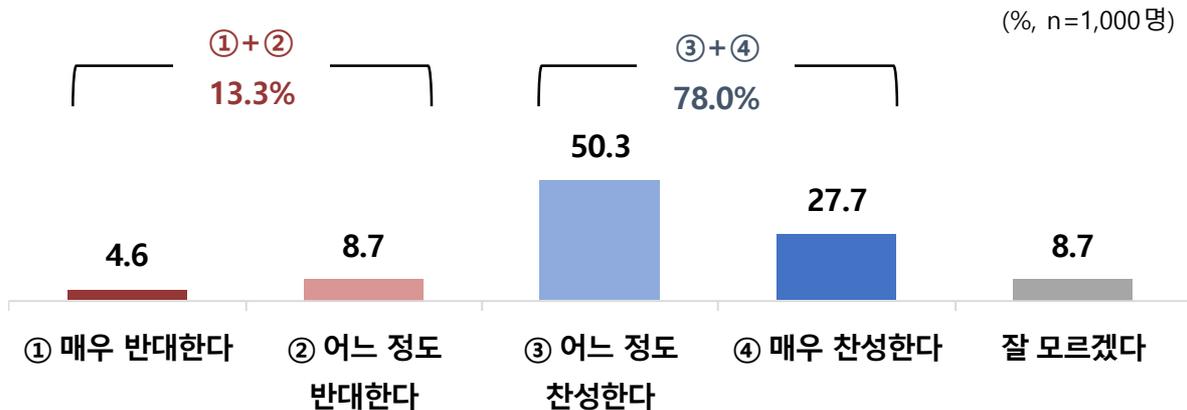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교통비로 환급해주는 방식" 응답은 남성 32.8%, 여성 41.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0.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50대에서 34.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3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3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1. 자동차 무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정책에 대한 찬반

5명 중 4명 가까이, "찬성한다"

QD31.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이용자에게도 인센티브(자동차 무소유자에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자동차 무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13.3%(매우 4.6%, 어느 정도 8.7%),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78.0%(매우 27.7%, 어느 정도 50.3%)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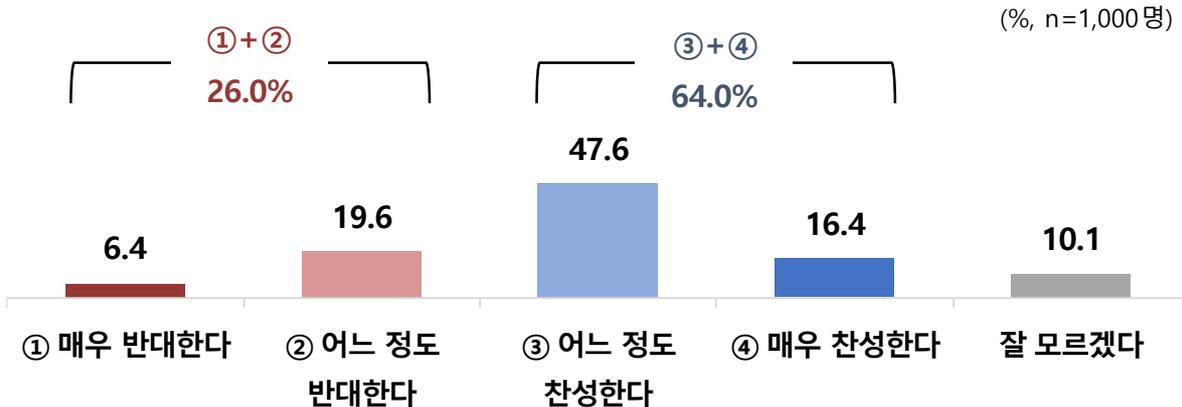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은 남성 77.7%, 여성 78.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80.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7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82.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75.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4.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74.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2.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주장에 대한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D32.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휘발유차, 경유차)의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암스테르담의 경우 2030년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운행금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64.0%(매우 16.4%, 어느 정도 47.6%),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26.0%(매우 6.4%, 어느 정도 19.6%)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0.1%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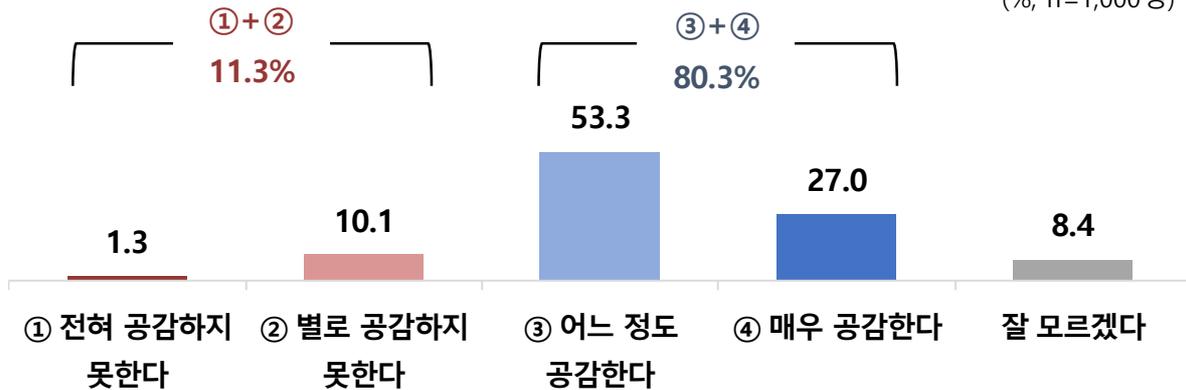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62.2%, 여성 65.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 70.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54.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66.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6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1.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9.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3. 정부의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에 대한 동의

5명 중 4명, “공감한다”

QD33. 귀하께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림축산 분야의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 n=1,000명)



○ 전체 분석

-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은 11.3%(별로 10.1%, 전혀 1.3%), “공감한다”라는 응답은 80.3%(매우 27.0%, 어느 정도 53.3%)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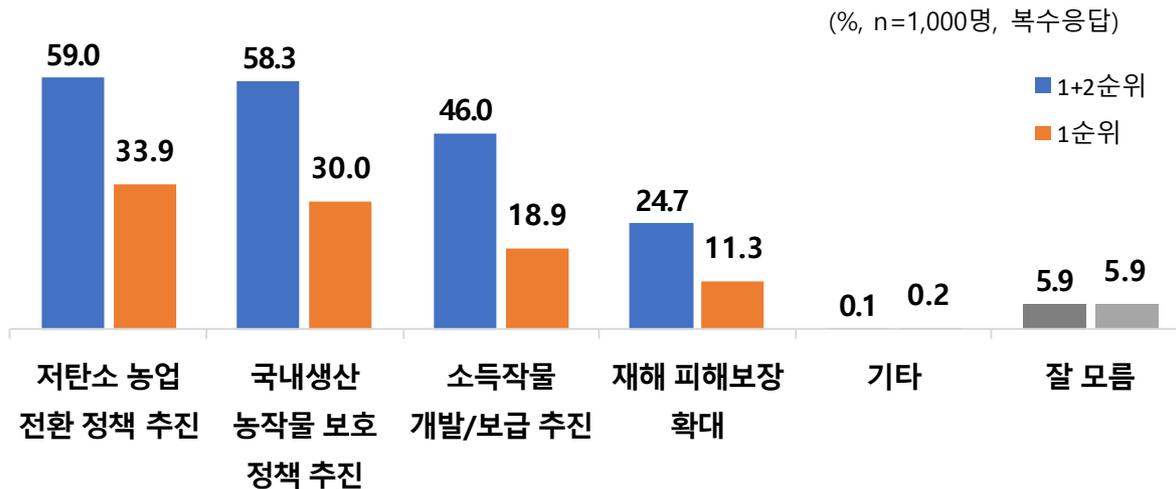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공감’ 응답은 남성 78.4%, 여성 82.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83.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7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83.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7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6.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7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야 하는 정책 1+2순위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 추진”과 “국내생산 농작물 보호” 응답 많아

QD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 전체 분석

-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야 할 정책을 물어 1, 2순위를 종합할 때,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 추진”이라는 응답이 59.0%, “국내생산 농작물 보호 정책 추진” 58.3%로 대등하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소득작물 개발/보급 추진” 46.0%, “재해 피해보장 확대” 24.7%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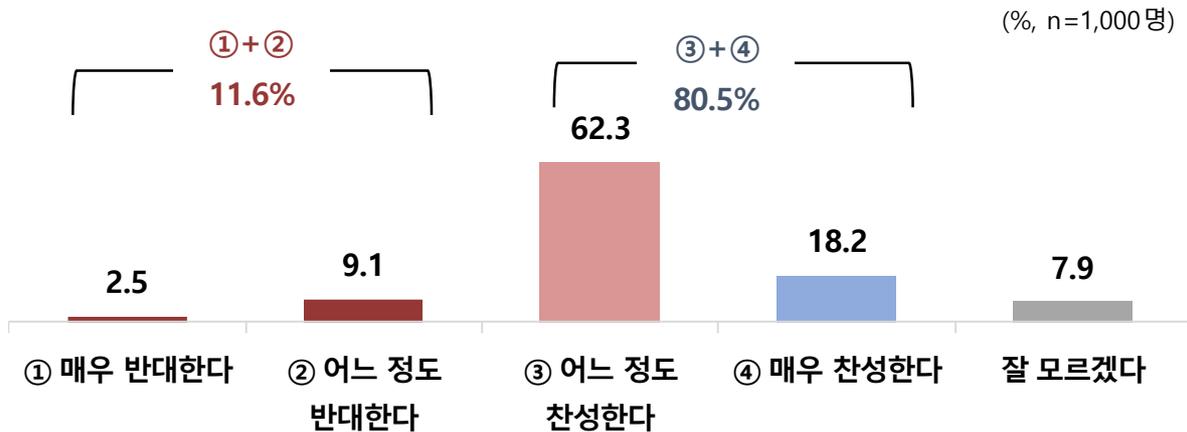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 추진” 응답은 남성 62.2%, 여성 55.8%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50.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55.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5.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54.6%, 보수 성향자 58.6%로 나타남.

35.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농민에 예산 지원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D35.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수축산 부문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7.1%를 감축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저탄소 기술 도입 농민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11.6%(매우 2.5%, 어느 정도 9.1%),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80.5%(매우 18.2%, 어느 정도 62.3%)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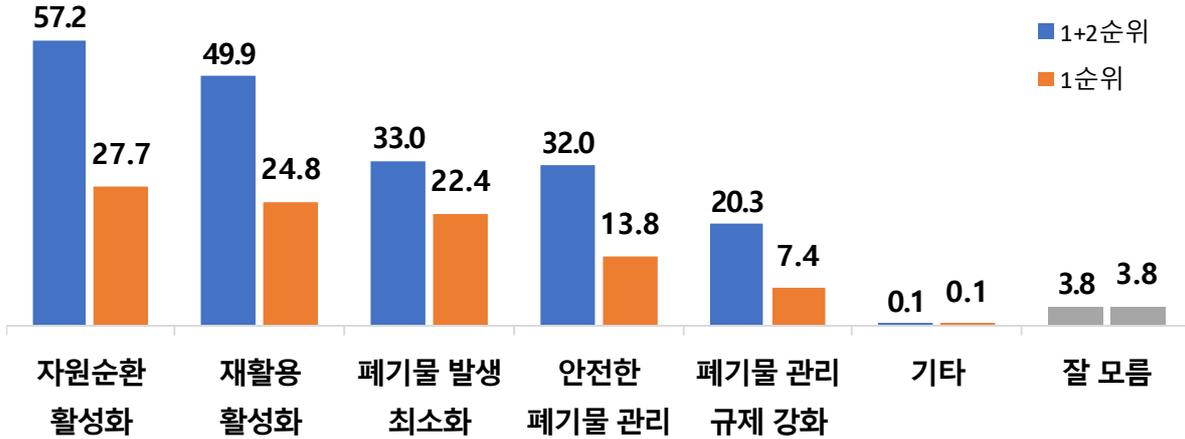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79.8%, 여성 81.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8.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7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84.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77.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8.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74.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6. 정부가 우선해야 하는 폐기물 관련 정책: 1+2순위

“자원순환 체계구축을 통한 자연순환 활성화” 응답 가장 많아

QD36. 귀하는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 n=1,000명, 복수응답)



○ 전체 분석

-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물어 1, 2순위를 종합했을 때, “자원순환 활성화”라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재활용 활성화” 49.9%, “폐기물 발생 최소화” 33.0%, “안전한 폐기물 관리” 32.0%,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20.3%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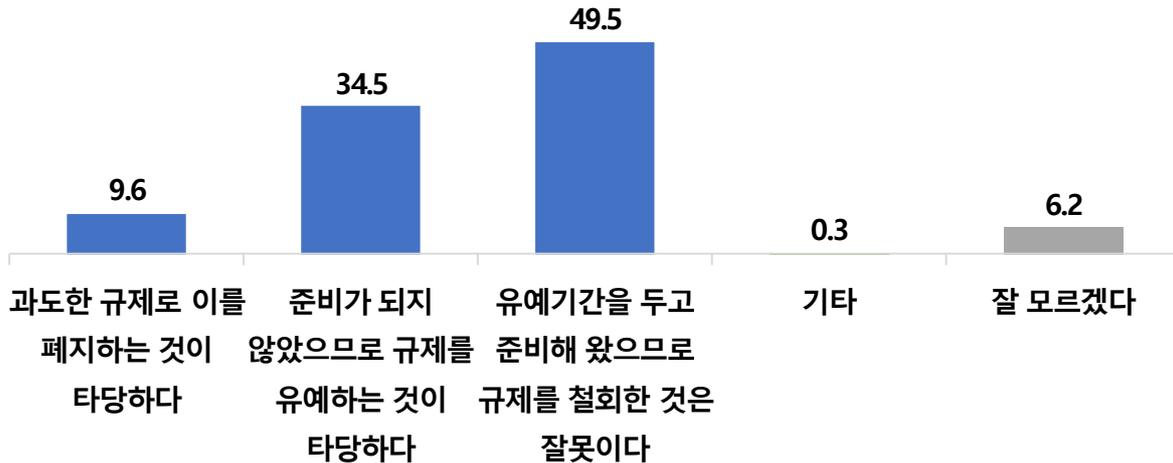
- “자원순환 활성화” 응답은 남성 60.5%, 여성 53.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1.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5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60.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5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2.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7.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에 대한 의견

절반가량, “규제를 철회한 것은 잘못이다”

QD37. 2023년 11월 환경부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감축하겠다고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n=1,000명, 복수응답)



○ 전체 분석

- 환경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에,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으므로 규제를 철회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응답은 49.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34.5%, “과도한 규제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9.6%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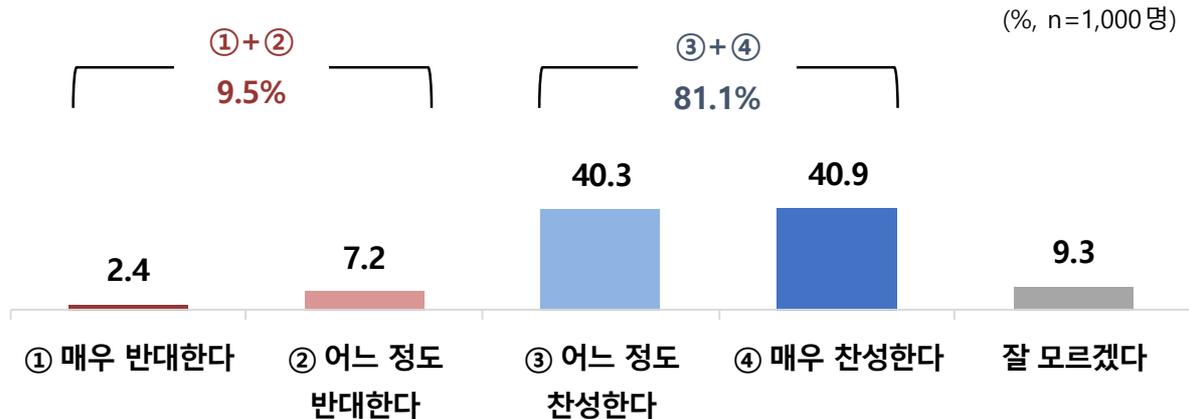
- “규제를 철회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응답은 남성 44.9%, 여성 54.0%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56.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36.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 36.6%, 인천 2권역에서 31.7%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 29.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PART D. 지역 이슈 인식

1. (인천)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F05.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021년 충남·전남북 일대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한국의 갯벌'로 등재하면서, 2024년까지 인천·경기 갯벌도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갯벌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매립 등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9.5%(매우 2.4%, 어느 정도 7.2%),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81.1%(매우 40.9%, 어느 정도 40.3%)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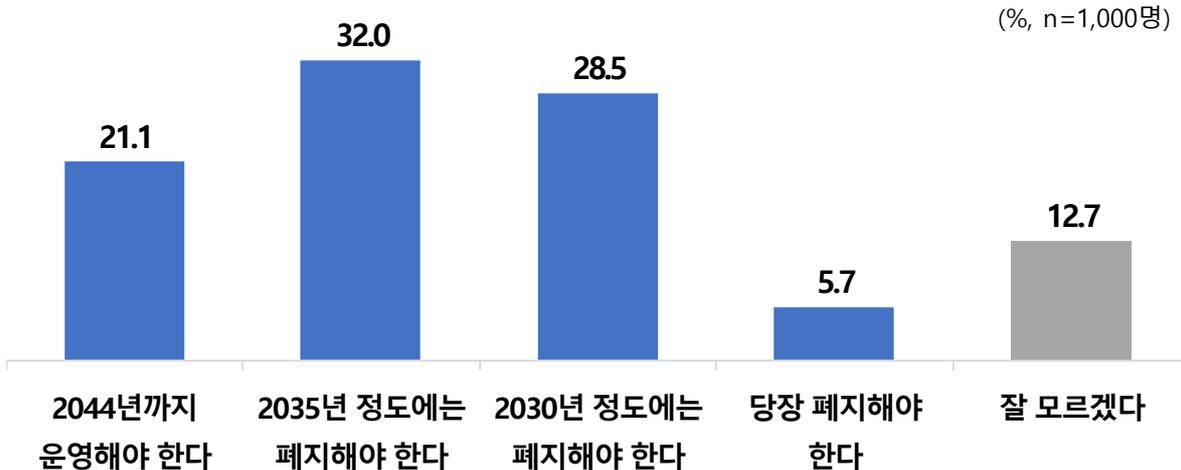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은 남성 79.5%, 여성 82.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1.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72.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81.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8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5.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78.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 (인천) 용진군 석탄발전소 운영 의견

'2035년 정도 폐지'와 '2030년 정도 폐지' 응답 대등

QF06. 용진군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진군 석탄발전소의 수명은 2044년까지입니다. 향후 용진군 석탄발전소 운영을 다음 중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용진군 석탄발전소의 향후 운영에 대해, "2035년 정도에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2.0%, "2030년 정도에는 폐지해야 한다" 28.5%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등했으며, "2044년까지 운영해야 한다" 21.1%로 나타남.
-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5.7%, 잘 모르겠다는 12.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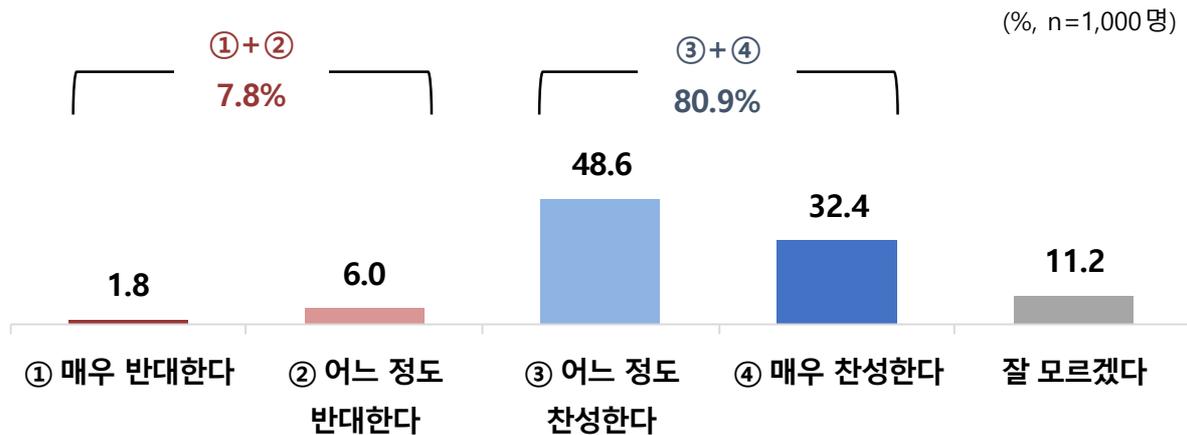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2035년 정도에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중 30.8%, 여성 중 32.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28.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28.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3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 (인천)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 추진에 대한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F07. 현재 인천 앞바다에 3건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7.8%(매우 1.8%, 어느 정도 6.0%),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80.9%(매우 32.4%, 어느 정도 48.6%),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2%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찬성'은 남성 83.3%, 여성 78.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0.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7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84.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7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7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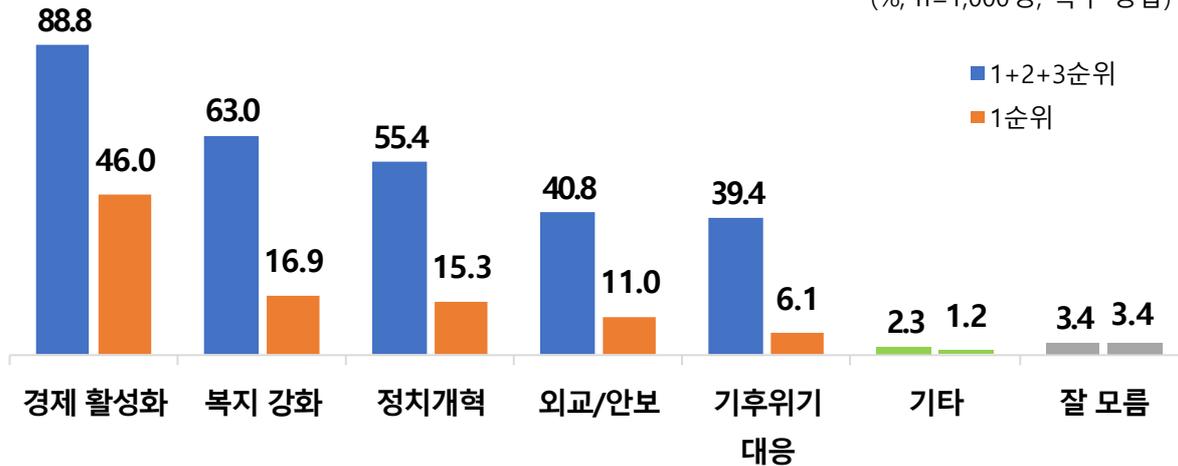
PART E. 기후위기 대응 책임 및 평가

1. 후보 공약 중 가장 관심이 큰 분야: 1+2+3순위

“경제 활성화” 응답이 가장 많아

QA01. 귀하께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의 다음 공약 분야 중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후보 지지를 결정하시겠습니까? 관심이 큰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n=1,000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내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공약 중 관심이 큰 분야를 물어 1, 2, 3순위를 종합할 때, “경제 활성화”라는 응답은 88.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복지 강화” 63.0%, “정치개혁” 55.4%, “기후위기 대응” 40.8%, “외교/안보” 39.4% “기타” 2.3%, “잘 모르겠다” 3.4%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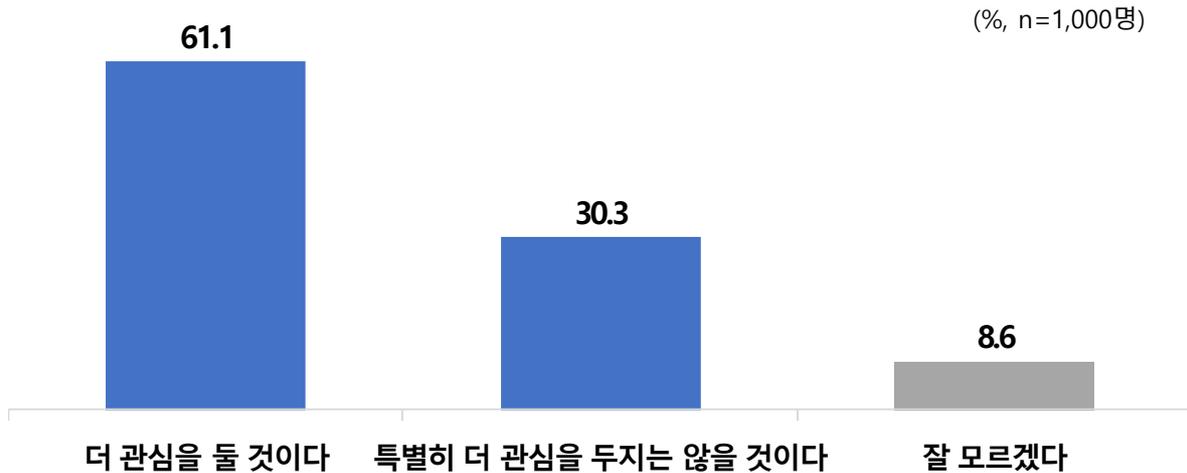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경제 활성화” 응답은 89.0%, 여성 88.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92.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8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91.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86.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92.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85.7%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대한 태도

5명 중 3명, "더 관심을 둘 것이다"라고 응답

QA02. 귀하께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실 것 같습니까?



○ 전체 분석

-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물었을 때, "더 관심을 둘 것이다"라는 응답은 61.1%, "특별히 더 관심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30.3%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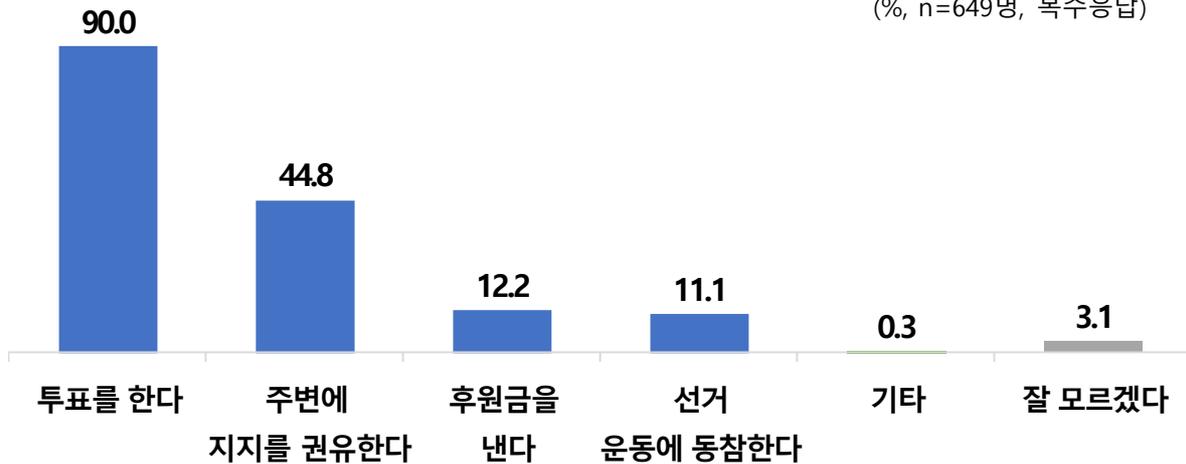
- "더 관심을 둘 것이다"라는 응답은 남성 57.6%, 여성 64.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8.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47.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66.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5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2.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4.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관심 표현 방식

10명 중 9명, “투표를 한다” 응답

QA03.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하실 것 같으십니까? 다음 중 해당 항목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n=649명, 복수응답)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강조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둘 것이라는 응답자 649명에게 관심 표현을 모두 물었을 때, “투표를 한다”라는 응답은 9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주변에 지지를 권유한다” 44.8%, “후원금을 낸다” 12.2%, “선거 운동에 동참한다” 11.1%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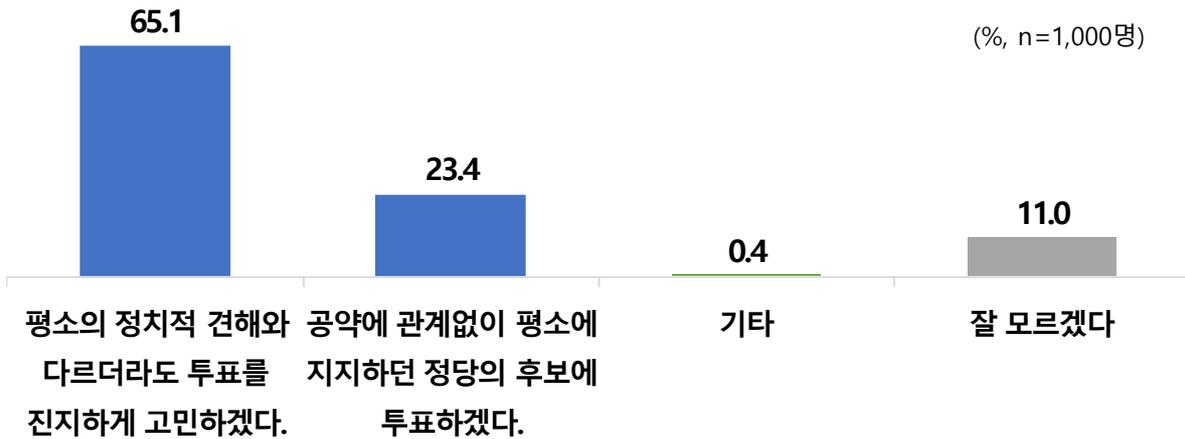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투표를 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90.9%, 여성 89.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93.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82.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95.0%, 인천 2권역에서 85.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92.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성향자 중에서 8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4.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한 태도

10명 중 7명,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

QA04. 귀하께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2024년 총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전체 분석

-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한 태도를 물었을 때,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는 응답은 65.1%, “공약과 관계없이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23.4%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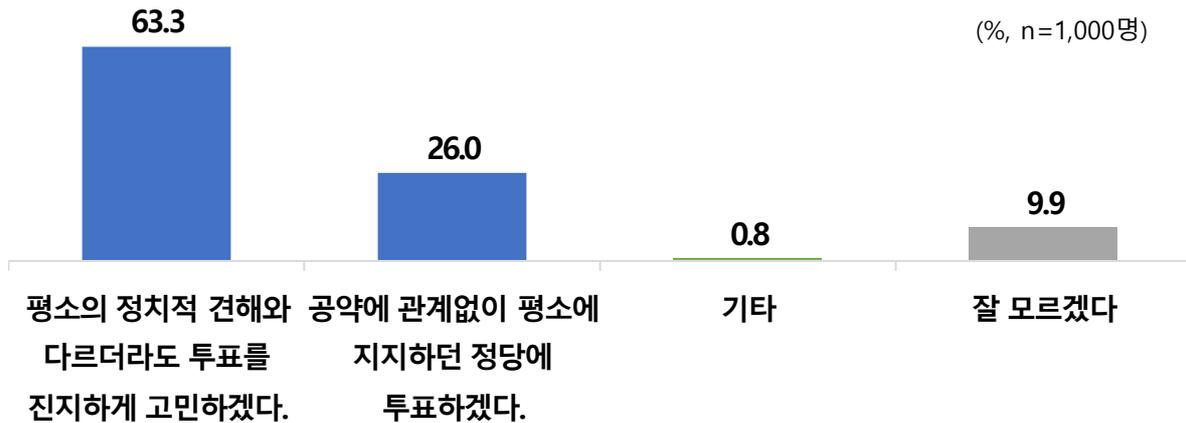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는 응답은 남성 64.1%, 여성 66.1%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8.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61.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68.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61.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7.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5.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에 대한 태도

3명 중 2명 가까이,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

QA05. 귀하께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2024년 총선거의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투표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전체 분석

-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에 대한 태도를 물었을 때,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는 응답은 63.3%, “공약과 관계없이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26.0%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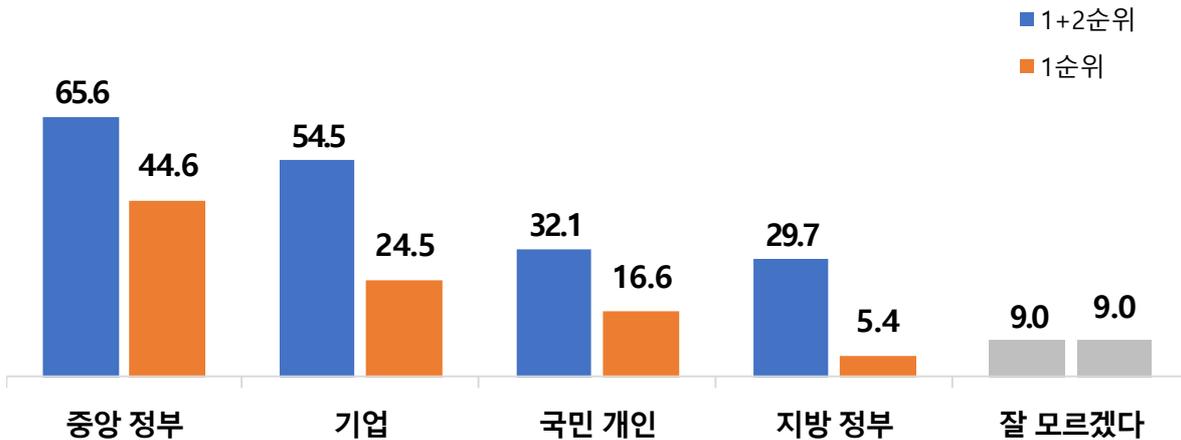
-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는 응답은 남성 60.3%, 여성 66.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6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68.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59.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66.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4.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6. 기후위기 문제 발생 책임: 1+2순위

3명 중 2명 가까이, “중앙 정부” 응답

QE01.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큰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 n=1,000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문제 발생 책임이 큰 주체를 물어 1, 2순위를 종합할 때, “중앙 정부”라는 응답이 65.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업”(54.5%), “국민 개인”(32.1%), “지방 정부”(29.7%) 순으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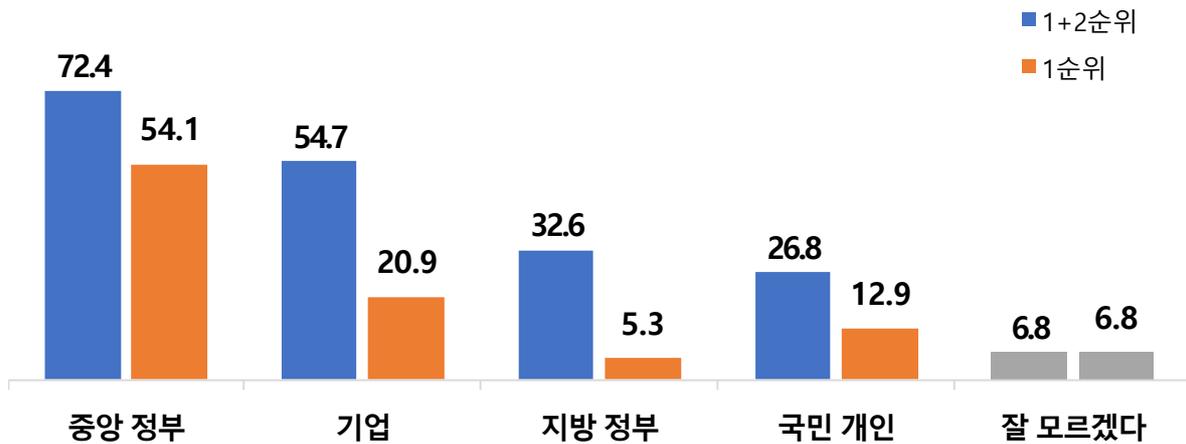
- “중앙 정부” 응답은 남성 65.5%, 여성 65.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71.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5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6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3.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5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7. 기후위기 문제 해결 책임: 1+2순위

10명 중 7명, “중앙 정부”라고 응답

QE02.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큰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 n=1,000명, 복수 응답)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책임이 큰 주체를 물어 1, 2순위를 종합할 때, “중앙 정부”라는 응답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업”(54.7%), “지방 정부”(32.6%), “국민 개인”(26.8%) 순으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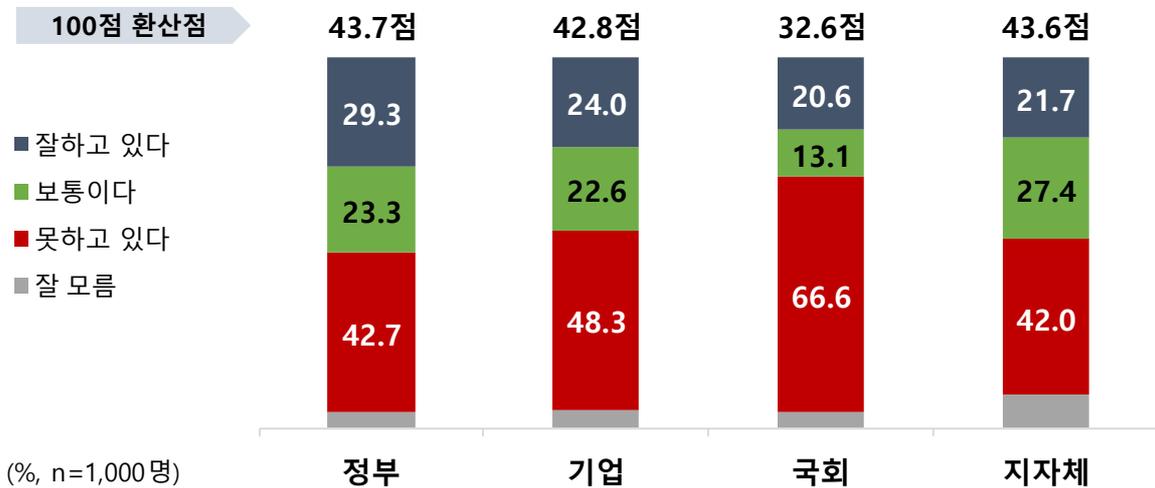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중앙 정부” 응답은 남성 71.3%, 여성 73.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75.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6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1권역에서 74.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67.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82.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64.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8. 기후위기 대응 평가(종합)

정부 > 기업 > 지자체 > 국회 순

- QE03. 귀하께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QE04. 귀하께서는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QE05. 귀하께서는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QE07. 기후위기 대응을 귀하가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전체 분석

- 주체별 기후위기 대응 평가를 물었을 때, 정부(29.3%), 기업(24.0%), 지자체(21.7%), 국회(20.6%) 순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비율이 높았음.
- 100점 평균 환산 시, 정부(43.7점), 지자체(43.6점), 기업(42.8점), 국회(32.6점)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는 남성 33.2%, 여성 25.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26.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31.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4권역에서 26.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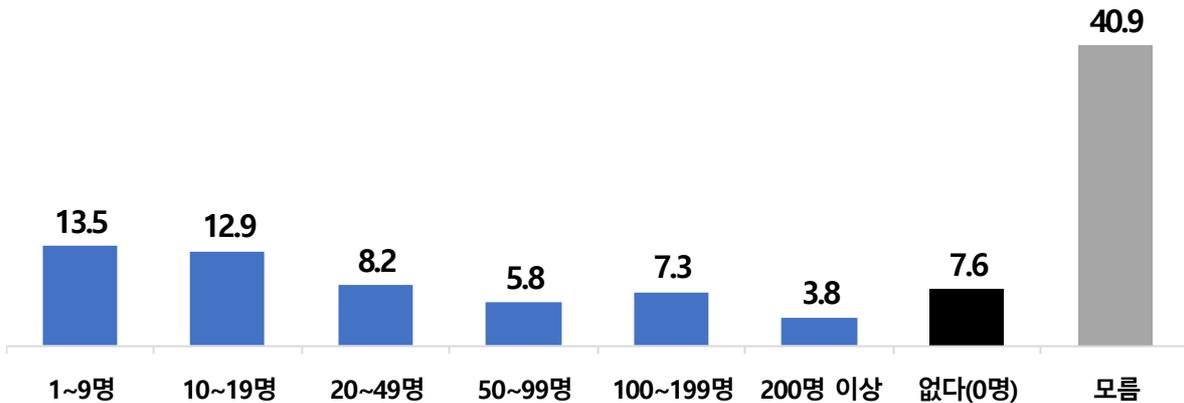
성향자 중에서 35.1%, 진보 성향자 중에서 28.9%로 나타남.

9. 국회의원 중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원 수(평균)

“1~9명”과 “10~19명” 응답 많아

QE06.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중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원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300까지 숫자를 써주세요.

(%, n=1,000명)



○ 전체 분석

- 국회의원 중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모름”이라는 응답은 40.9%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그다음으로 “1~9명” 13.5%, “10~19명” 12.9%, “20~49명” 8.2%, “50~99명” 5.8%, “100~199명” 7.3%, “200명 이상” 3.8%, “없다” 7.6% 순으로 나타남.
- 없다는 응답은 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9%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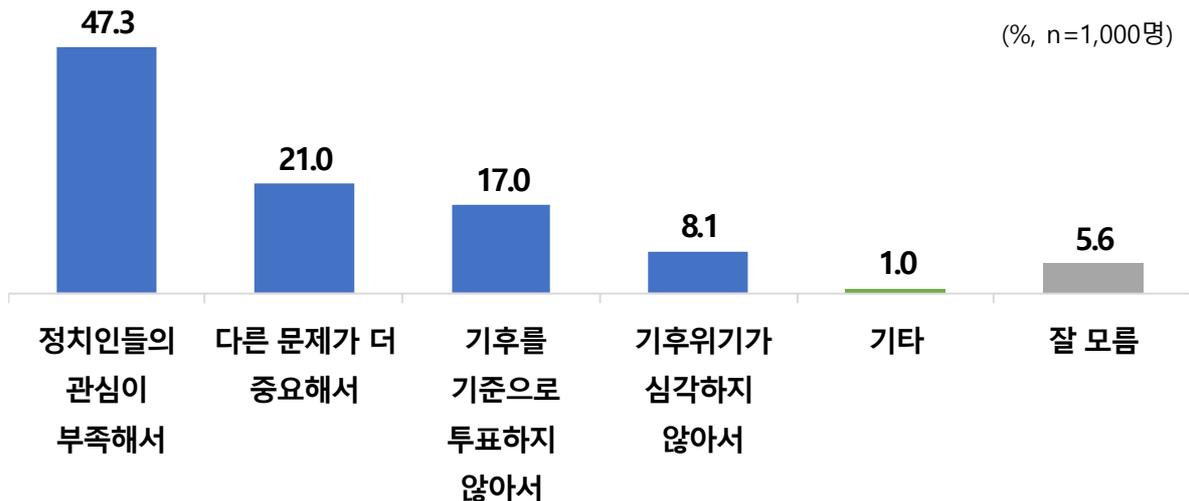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1~9명” 응답은 남성 19.8%, 여성 18.1%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19.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8.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16.4%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인천 2권역 중에서 12.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13.2%, 중도 성향자 14.3%, 보수 성향자 12.4%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10. 국내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이 아닌 이유

절반가량,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라고 응답

QE08. OECD에 속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기후위기 문제가 주된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귀하께서는 그 이유가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분석

- 국내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이 아닌 이유를 물었을 때,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47.3%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그다음으로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해서” 21.0%, “기후를 기준으로 투표하지 않아서” 17.0%,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아서” 8.1% 순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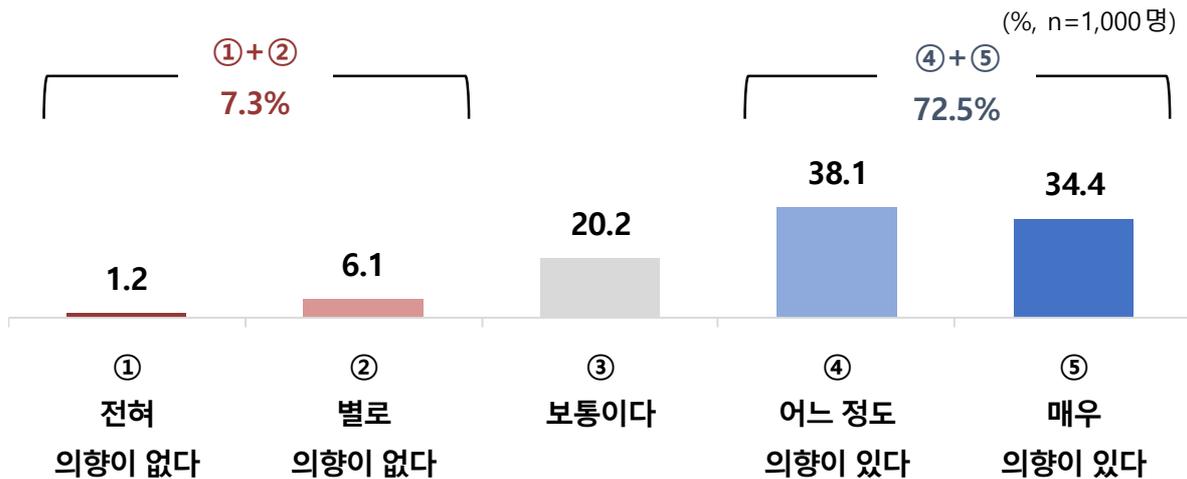
-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남성 46.6%, 여성 48.0%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57.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3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52.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44.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4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PART F. 행위 의지

1.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의향

4명 중 3명 가까이, “의향 있다”

QG01.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전체 분석

- 탄소포인트제도 참여 의향을 물었을 때 “의향이 없다”라는 미의향 응답 7.3%(전혀 1.1%, 별로 6.1%),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 응답은 72.5%(매우 34.4%, 어느 정도 38.1%)로 의향 응답이 56.3%p 우세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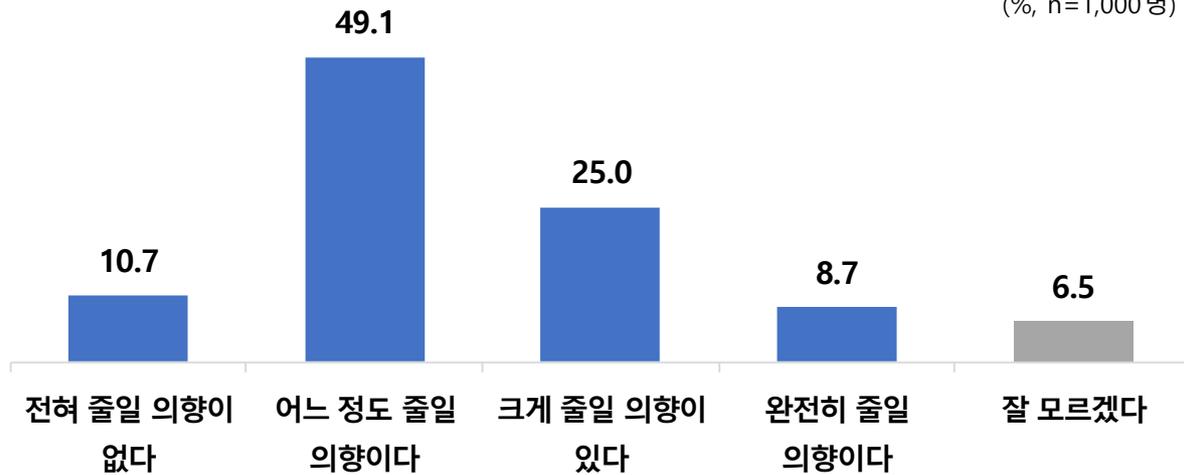
- ‘의향 있음’은 남성 65.5%, 여성 68.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1.8%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18~29세에서 61.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4권역에서 64.0%로 가장 낮았음.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71.3%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는 64.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육류 소비 줄일 의향

절반가량, “어느 정도 줄일 의향이다”

QG02. 우리 식단에서 육류소비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일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 n=1,000명)



○ 전체 분석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어느 정도 줄일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크게 줄일 의향이 있다” 25.0%, “완전히 줄일 의향이다” 8.7%로 나타남.
- “전혀 줄일 의향이 없다” 10.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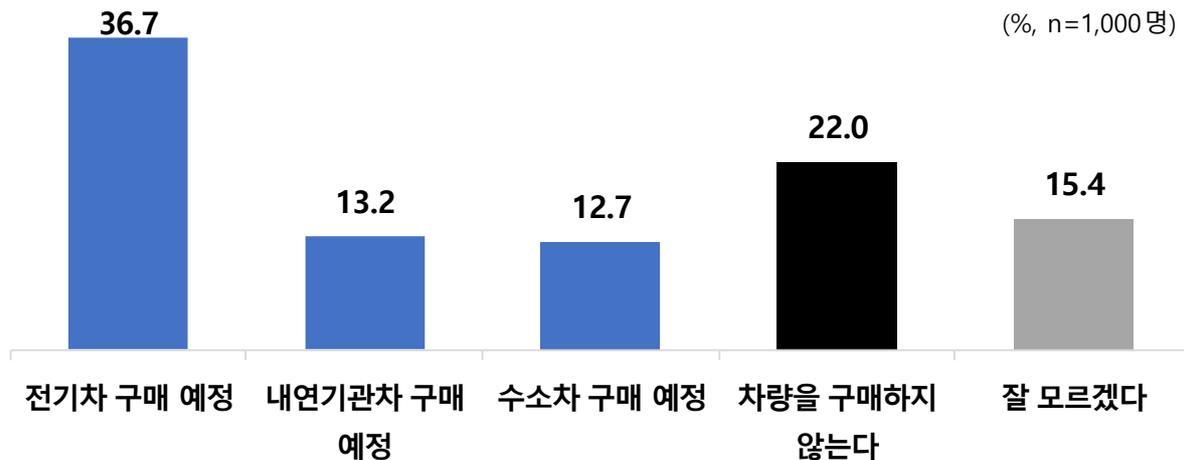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어느 정도 줄일 의향이다”라는 응답은 남성 44.9%, 여성 53.3%로 나타남.
- 연령대 중에는 60세 이상에서 5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34.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50.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1권역이 4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2.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자 중에서 4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 구매 예정인 차량 유형

5명 중 2명 가까이, “전기차 구매 예정”

QG03. 귀하께서는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 다음 중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전체 분석

- 구매 예정인 차량 유형을 물었을 때, “전기차 구매 예정”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내연기관차 구매 예정”(13.2%), “수소차 구매 예정”(12.7%)로 나타남.
-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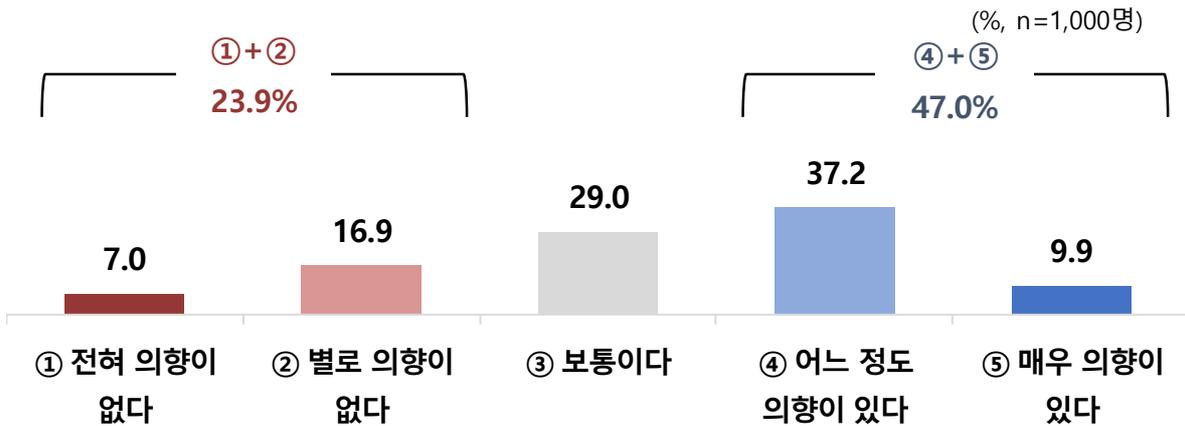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전기차 구매 예정” 응답은 남성 37.8%, 여성 35.5%로 나타남.
- 연령대 중에는 60세 이상에서 43.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8~29세에서 27.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37.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3권역에서 36.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4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32.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4. 거주공간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향

절반가량, “의향이 있다”

QG04. 귀하께서는 사시는 집이나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전체 분석

- 거주 공간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향을 물었을 때, “의향이 없다”라는 응답은 23.9%(별로 16.9%, 전혀 7.0%),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47.0%(매우 9.9%, 어느 정도 37.2%)로 의향 응답이 23.1%p 더 많았음
-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9.0%로 나타남.
- 100점 환산 시 평균 의향 점수는 56.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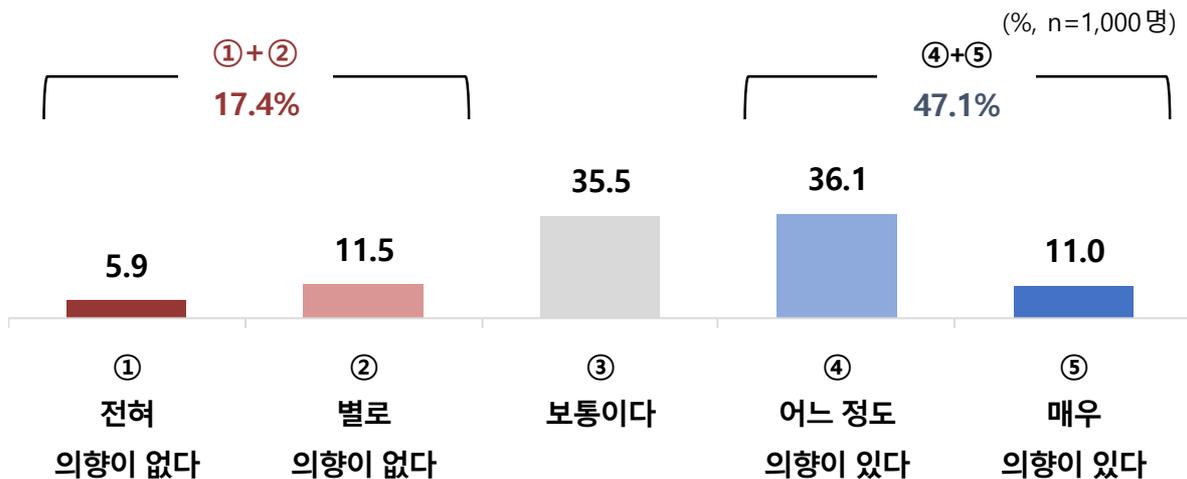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의향 있음’ 응답은 남성 49.5%, 여성 47.0%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57.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에서 33.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53.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1권역에서 43.7%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는 42.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5. 기후위기 대응위해 비행기 이용 횟수 줄일 의향

절반가량, “의향이 있다”

QG05.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행기 이용 횟수를 줄일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행기 이용 횟수를 줄일 의향을 물었을 때, “의향이 없다”라는 미의향 응답 26.3%(전혀 5.9%, 별로 11.5%),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 응답 47.2%(매우 11.0%, 어느 정도 47.1%)로 의향 응답이 29.7%p 우세함.
-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5.5%로 나타남.
- 100점 환산 시 평균 의향 점수는 58.7점임.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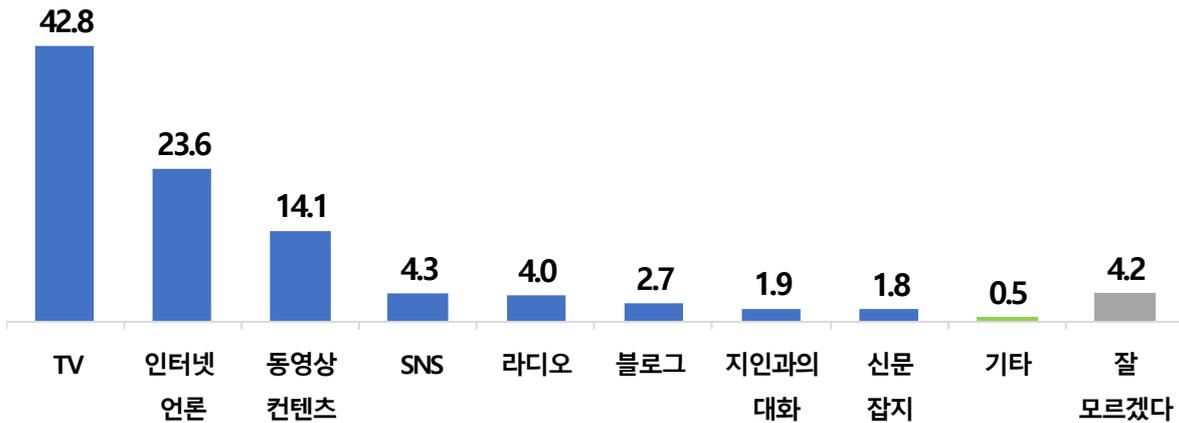
- ‘의향 있음’ 응답은 남성 44.4%, 여성 49.8%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29세 41.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54.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천 2권역에서 42.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자 중에서 43.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6.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주로 많이 접하는 매체

TV > 인터넷 언론 > 동영상 콘텐츠 순

QH13. 귀하께서 평소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n=1,000명)



○ 전체 분석

-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주로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었을 때, “지상파 및 종합편성 TV”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그다음으로 “인터넷 언론기사”(23.6%),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14.1%), “SNS”(4.3%), “라디오”(4.0%), “블로그”(2.7%), “지인과의 대화”(1.9%), “종이로 인쇄된 신문/잡지”(1.8%) 순임.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2%임.

○ 특성별 분석

- “TV” 응답은 남성 40.8%, 여성 44.8%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1.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20.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4권역에서 47.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2권역에서 4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 4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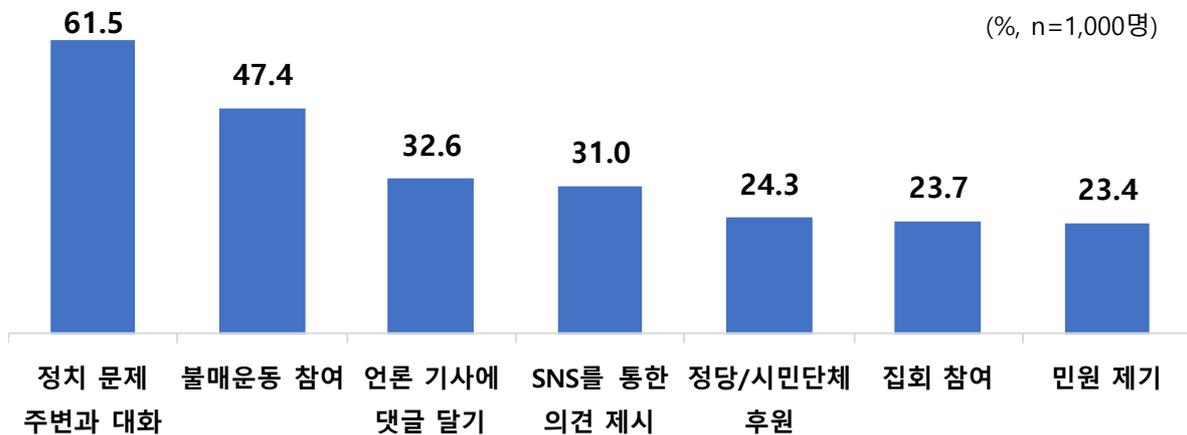
PART G. 정치행동 및 현안 인식

1. 정치/사회 현안 활동 경험 종합

“정치/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 하기” 응답 가장 많아

※ 귀하께서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고, 없었다면 향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Q14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 Q15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 Q1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 Q17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 Q18 불매운동 참여하기
- Q19 정당, 시민단체 등 정치·사회단체에 후원하기
- Q20 언론 기사에 댓글 달기



○ 전체 분석

- 정치/사회 현안 활동 경험을 물었을 때,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불매운동 참여하기”(47.4%), “언론 기사에 댓글 달기”(32.6%) “SNS에서 게시판 등의 의견 올리기”(31.0%), 정당, 시민단체 등 정치·사회단체에 후원하기”(24.3%), “집회 참여”(23.7%) “순으로 조사됨.

○ 특성별 분석

- “정치·사회 현안에 주변 사람과 대화하기”라는 응답은 남성 58.7%, 여성 64.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65.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58.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64.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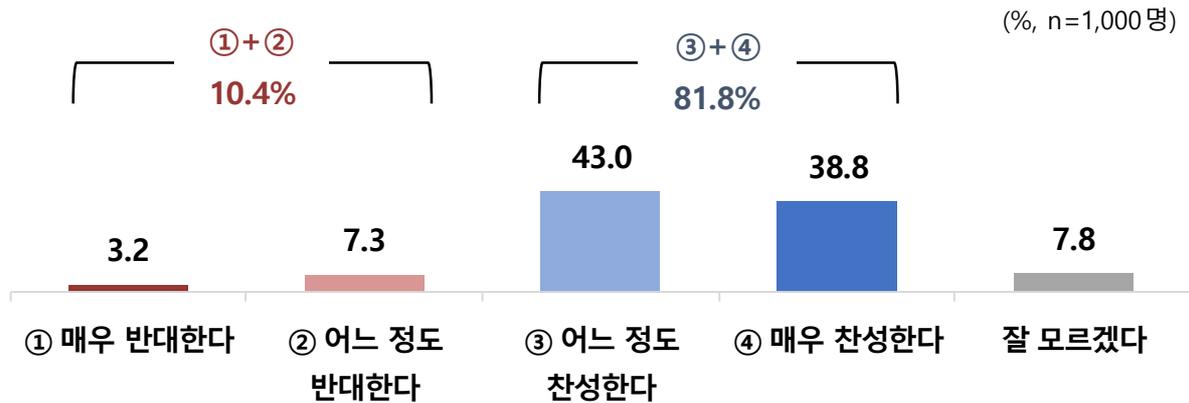
5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9.2%로 가장 높은 비율임.

2. 중대재해처벌법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15. 귀하께서는 기업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10.4%(매우 3.2%, 어느 정도 7.3%),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81.8% (매우 38.8%, 어느 정도 43.0%)로 조사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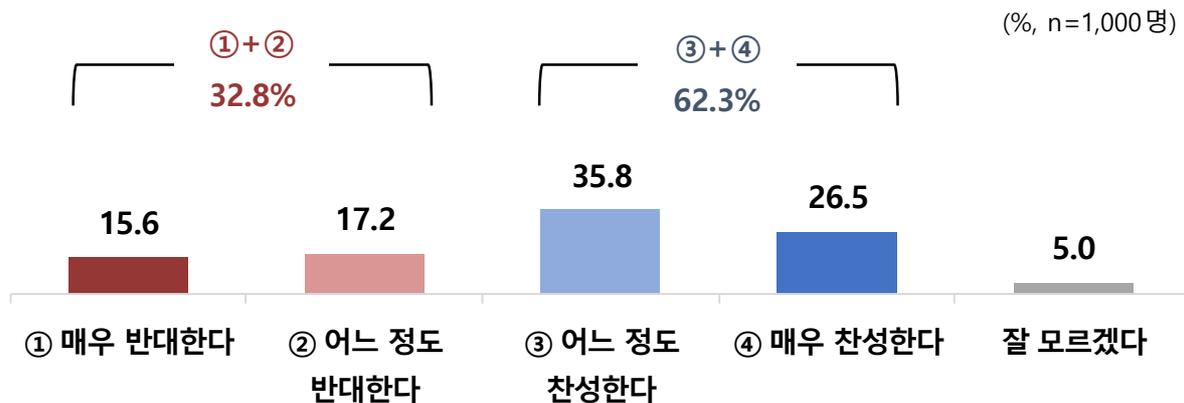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78.4%, 여성 85.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8~29세 75.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83.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79.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90.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7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3. 어린이 안전통학로 내 속도제한 상향 조정(40km/h)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16. 귀하께서는 어린이 안전통학로에서 30km/h 이하 속도제한을 40km/h로 올리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어린이 안전통학로 내 속도제한 상향 조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2.8%(매우 15.6%, 어느 정도 17.2%),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62.3%(매우 26.5%, 어느 정도 35.8%)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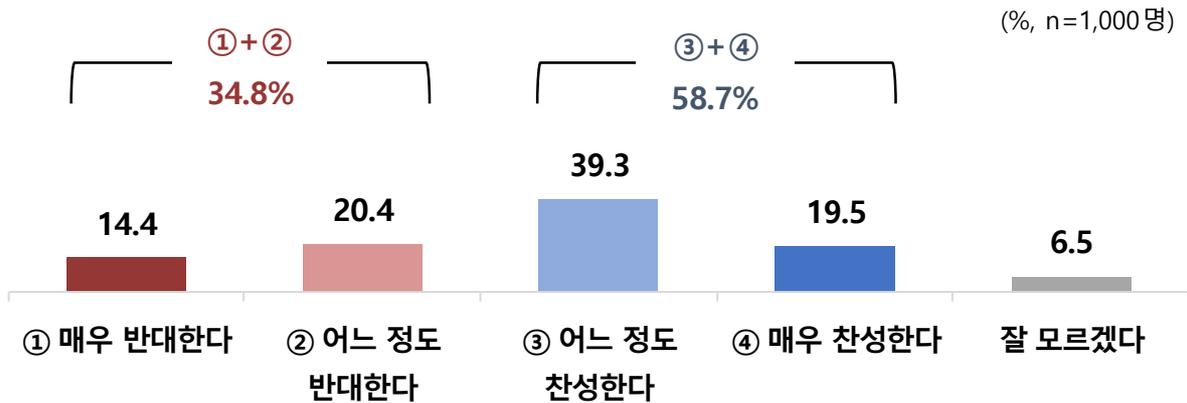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68.3%, 여성 56.3%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1.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0대에서 5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3권역에서 65.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60.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 중에서 70.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 59.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4. 노키즈존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17. 귀하께서는 카페, 식당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전체 분석

-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4.8%(매우 14.4%, 어느 정도 20.4%),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58.7%(매우 19.5%, 어느 정도 39.3%)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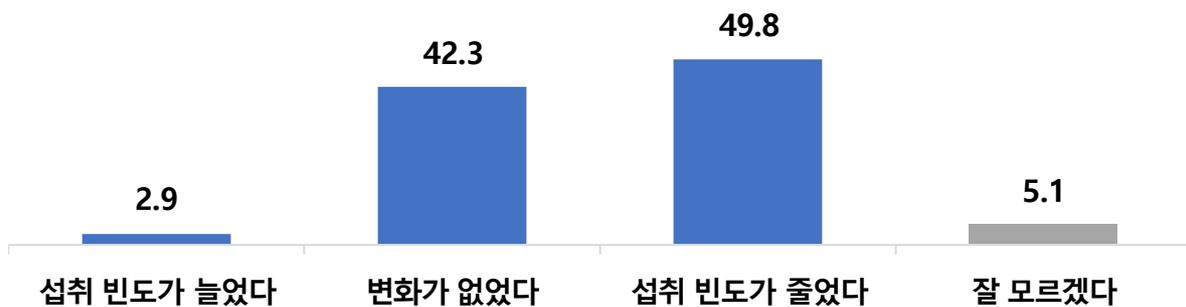
-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 63.6%, 여성 53.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3.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5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3권역에서 5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 5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섭취 빈도 변화

절반가량, “섭취빈도가 줄었다”라고 응답

Q18. 귀하께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을 섭취하시는 빈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n=1,000명)



○ 전체 분석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섭취 빈도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섭취 빈도가 줄었다”라는 응답은 49.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었다”라는 응답은 42.3%, “섭취 빈도가 늘었다”는 2.9%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섭취 빈도가 줄었다”라는 응답은 남성 44.1%, 여성 55.4%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56.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60세 이상에서 4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로는 인천 2권역에서 53.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천 1권역에서 4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중에서 66.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2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별첨 설문지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사회 현안 관련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메타보이스 주식회사입니다. 본 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시면 2,000원의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지역 국민 중 ○%가 이러저러하다"라는 식으로 통계 처리해 활용될 뿐 개별 응답자의 응답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 / 메타보이스(주) / 02-429-2022 / metavoices@naver.com

Part SQ. 응답자 선별 문항

문항 수 : 3개

SQ1. 귀하의 연령은 현재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 1. 17세 이하
- 2. 18세부터 29세까지
- 3. 30대
- 4. 40대
- 5. 50대
- 6. 60대
- 7. 70세 이상

SQ2. 귀하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어디입니까?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SQ3. 그럼 귀하께서는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시는지요?

SQ4. 귀하께서는 남성이신가요, 여성이신가요?

- 1. 남성
- 2. 여성

Part A. 선거 태도 및 정보 인지

문항 수 : 15개

QA01. 귀하께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의 다음 공약 분야 중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후보 지지를 결정하시겠습니까? 관심이 큰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지 1~5 번갈아 제시)

1순위: __, 2순위: __, 3순위: __

- 1. 경제 활성화
- 2. 복지 강화
- 5. 기후위기 대응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

- 3. 정치개혁
- 4. 외교/안보

99. 잘 모르겠다

QA02. 귀하께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실 것 같습니까?

- 1. 더 관심을 둘 것이다.
- 2. 특별히 더 관심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 3. 잘 모르겠다

QA03. (QA02에 1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하실 것 같으십니까? 다음 중 해당 항목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투표를 한다
- 2. 주변에 지지를 권유한다
- 3. 후원금을 낸다
- 4. 선거 운동에 동참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A04. 귀하께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2024년 총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 2. 공약에 관계없이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A05. 귀하께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2024년 총선거의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투표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 2. 공약에 관계없이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에 투표하겠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 (QA06~QA13) 다음은 귀하께서 기후위기 관련 용어나 표현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를 여쭙는 문항입니다. 다음 각 표현에 대해 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부터, 4 '매우 잘 알고 있다'까지 중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QA06.	온실가스	1	2	3	4
QA07.	탄소발자국	1	2	3	4
QA08.	ESG	1	2	3	4
QA09.	RE100	1	2	3	4
QA10.	탄소국경조정제도	1	2	3	4
QA11.	파리협정 1.5°C 목표	1	2	3	4
QA12.	탄소중립	1	2	3	4
QA13.	기후정의	1	2	3	4

QA14. 귀하께서는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매우 그렇다' 10점까지 점수로 선택해 주십시오.

- 1.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 1점
- 3. 2점
- 4. 3점
- 5. 4점
- 6. 5점 보통이다
- 7. 6점
- 8. 7점
- 9. 8점
- 10. 9점
- 11. 10점 매우 그렇다
- 99. 잘 모르겠다

QA15. (QA14에서 6~10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적 변화와 인간 활동 중 무엇이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자연적 변화' 0점부터 '전적으로 인간 활동' 10점까지 점수로 선택해 주십시오.

- 1. 0점 전적으로 자연적 변화
- 2. 1점
- 3. 2점
- 4. 3점
- 5. 4점
- 6. 5점 중간 정도
- 7. 6점
- 8. 7점
- 9. 8점
- 10. 9점
- 11. 10점 전적으로 인간 활동
- 99. 잘 모르겠다

Part B. 기후 민감도

문항 수 : 14개

※ 다음 문항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진술문에 포함되는 경험을 귀하께서 얼마나 했는지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가끔 있음', 4. '자주 있음', 5. '거의 항상'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정서 장애]

번호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거의 항상
QB01.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잠을 자기가 어렵다.	1	2	3	4	5
QB02.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다.	1	2	3	4	5
QB03.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1	2	3	4	5
QB04.	기후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기능 장애]

번호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거의 항상
QB05.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1	2	3	4	5
QB06.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QB07.	내 친구들은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개인적인 경험]

번호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거의 항상
QB08.	나는 일생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QB09.	나는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	1	2	3	4	5
QB10.	내가 알고 있는 장소가 기후변화로 큰 변화가 생겼다.	1	2	3	4	5

[행동 참여]

번호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거의 항상
QB11.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QB12.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활용을 잘 한다.	1	2	3	4	5
QB13.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1	2	3	4	5
QB14.	나는 내가 기후변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Part C.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판단

문항 수 : 13개

QC01.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산불
- 2. 폭염
- 3. 가뭄
- 4. 홍수(침수)
- 5. 산사태
- 99. 잘 모르겠다

QC02. 귀하께서는 최근 한국에서 늘어난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 같은 재난과 기후변화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관련 없을 것이다
- 2. 별로 관련 없을 것이다
- 3. 어느 정도 관련 있을 것이다
- 4. 매우 관련 있을 것이다
- 99. 잘 모르겠다

QC03. 귀하께서는 최근 한국에서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원인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기후위기로 재난의 규모가 커져서
- 2. 국가의 재난 대비 역량이 미흡해서
- 3. 개인의 재난 대비 역량이 미흡해서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C04. 귀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아래 7개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 | |
|----------------------|------------------|
| 1.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 5. 팬데믹 등 보건위기 |
| 2. 폭우, 가뭄 등 기후위기 | 6. 북핵문제 등 안보위기 |
| 3. AI, 개인정보 등 사이버 위기 | 7. 생산량 감소 등 식량위기 |
| 4. 전기료 상승 등 에너지 위기 | 99. 잘 모르겠다 |

QC05.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다음의 이유 중 두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을 기후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2. 국제적 탄소중립 규제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3. 자연재난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3.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해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99. 잘 모르겠다

QC06.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산(주식 등 금융자산 및 토지·주택 등 부동산자산) 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 | |
|------------------|------------------|
|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4.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
| 2.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5. 매우 영향을 받는다 |
| 3.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C07.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향을 크게 받는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 | | |
|---------------|----------------|
| 1. 에너지산업 | 5. 관광, 요식, 숙박업 |
| 2. 농업, 어업, 임업 | 6. 정보통신업 |
| 3. 제조업 | 99. 잘 모르겠다 |
| 4. 운수, 물류업 | |

QC08.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혹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심한 영향을 받는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0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7. 6점 |
| 2. 1점 | 8. 7점 |
| 3. 2점 | 9. 8점 |
| 4. 3점 | 10. 9점 |
| 5. 4점 | 11. 10점 매우 심한 영향을 받는다 |
| 6. 5점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C09.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주장 중 무엇에 더 동의하십니까

1. 지역 산업에 단기적·장기적으로 모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역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역 산업에 단기적·장기적으로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99. 잘 모르겠다

QC10. 귀하께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정책이 일자리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감소시킬 것이다
2.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3.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4.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이다
5. 많이 증가시킬 것이다
99. 잘 모르겠다

QC11. 국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귀하께서는 자원 마련을 위한 방법 중 무엇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개인들의 소득세를 인상해서
2. 고소득자 대상의 부유세를 신설해서
3.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4. 상품에 탄소 비용을 매기는 탄소세를 신설해서
99. 잘 모르겠다.

QC12.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귀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 매우 반대한다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4. 매우 찬성한다
99. 잘 모르겠다

QC13.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귀하께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0~1천원 미만
2. 1천원 이상~1만원 미만
3.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4.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5.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6. 5만원 이상
99. 잘 모르겠다.

※ 다음은 에너지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을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전력생산 39%, 산업 38%, 수송 14%, 건물 8%, 농축수산 4%, 폐기물 2%입니다. (배출량 많은 순)

▣ Coding: 위의 박스와 아래 QD01은 한 화면에 노출

[전환]

QD01. 정부는 전력생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원전확충, 재생에너지 확충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정책 중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석탄발전 감축
- 2. 원자력발전 확대
- 3. 재생에너지 확대
- 99. 잘 모르겠다

QD02.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선진국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2.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 3.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
- 4. 매우 잘 알고 있다

QD03.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총 60여기의 석탄발전소 중에서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2.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 3.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 4. 매우 잘 알고 있다

QD04.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7조("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시점이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030년
- 2. 2040년
- 3. 2045년
- 4. 2050년
- 99. 잘 모르겠다

QD05.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스(LNG)발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발전도 석탄발전의 절반에 가까운(45.2%)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06. 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를 새로 건설하고,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2.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 3.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 4. 매우 잘 알고 있다

QD07. 귀하께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신규 발전소 건설과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 **모두 찬성**
- 2. 신규 발전소 건설은 **찬성**하지만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은 **반대**
- 3. 신규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지만,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은 **찬성**
- 4. 신규 발전소 건설과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 **모두 반대**
- 99. 잘 모르겠다.

QD08.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8.29%입니다. 같은 해 기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8.1%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1.6%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높여야 한다고, 혹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목표치를 많이 낮춰야 한다.
- 2. 목표치를 조금 낮춰야 한다.
- 3. 적절한 목표다
- 4. 목표치를 조금 높여야 한다.
- 5. 목표치를 많이 높여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09. 만약 우리나라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 2.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 3. 깨끗한 공기와 환경을 위해서
- 4. 더 높일 필요가 없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10. 평소 귀택에 부과되는 월간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1. 1만원 미만
- 2.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3. 3만원 이상 - 6만원 미만
- 4. 6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5.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6. 15만원 이상
- 99. 잘 모르겠다

QD11. 귀하께서는 평소 사용하시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싸다고 혹은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비싸다
- 2. 다소 비싸다
- 3. 적절하다
- 4. 싸다
- 5. 매우 싸다
- 99. 잘 모르겠다

QD12. 사용하는 전기량 대비 생산하는 전기량의 비율(생산전기량/소비전기량)을 '전력자립도'라고 합니다. 전력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이 243%로 가장 높고, 대전이 2%로 가장 낮습니다. (2021년 기준) 귀하께서는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가 다음 중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현재 수준
- 2. 30% 수준
- 3. 50% 수준
- 4. 70% 수준
- 5. 100% 수준
- 99. 잘 모르겠다

QD13. 지역별 전력자급률(특정 지역이 스스로 사용할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율)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력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서울, 경기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단가를 책정하고, 자급률이 높은 지역(인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단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14.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현재 205조원(2023년 9월 기준)이고 하루에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은 130억원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전력의 부채 누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공기업인 한전이 자구책으로 감당해야 한다
- 2.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기요금을 동결했으니,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 3.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15. 프랑스에서는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16. 귀하께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QD17. (QD16에서 1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고려하셨던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 2. 경제적인 이유로(지원금, 전기요금 인하)
- 3. 공동주택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18. (QD16에서 2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고려하셨던 순위대로 세 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1. 내 집이 아니라서
- 2. 전기요금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 3. 설치비용이 부담되어서
- 4. 관리가 부담되어서
- 5.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 6. 설치 방법을 몰라서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산업]

QD19. 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사용하는 'RE100' 약속이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중요하다
- 5. 매우 중요하다
- 99. 잘 모르겠다

QD20.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RE100'을 실천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중요하다
- 5. 매우 중요하다
- 99. 잘 모르겠다

QD21. 정부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6%에서 11.4%로 줄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줄인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22. (QD21에 3, 4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과도한 규제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 2.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3. 다른 부문에서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23. (QD21에 1, 2번 응답자) 귀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산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 2.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 3. 기업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건물]

QD24.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을 할 때, 최대 3~4%의 저리로 이자를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을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종료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25.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존 이자지원이라도 계속해야 한다.
- 2. 이자 지원보다는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3. 민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므로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수송]

QD26. 우리나라에는 총 2,587만대의 차량이 등록(2023년)되어 있어, 총인구 2명 중 1명이 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적정대수를 정하고 차량등록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27. (QD26에 3, 4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탄소배출 감축
- 2. 미세먼지 감축
- 3. 교통정체 해소
- 4. 대중교통 활성화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28. (QD26에 1, 2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개인의 자유 침해
- 2. 자동차 산업 위축
- 3. 대중교통이 미비하기 때문에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29. 귀하께서는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 2순위: __

- 1. 대중교통 노선과 차량의 확대
- 2. 대중교통의 요금 인하
- 3.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제
- 4. 전기차 확대
- 5.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6. 개인용이동장치(전동 킥보드등) 확대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30.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20~30%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교통비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연간 최대 21만 6천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의 정액카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동백패스'는 월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4만 5천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전국단위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다음 제도 중 무엇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통비로 환급해 주는 방식
- 2. 정액카드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 3.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식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31.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이용자에게도 인센티브(자동차 무소유자에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32.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휘발유차, 경유차)의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암스테르담의 경우 2030년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운행금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농축산물]

QD33. 귀하께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림축산 분야의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 1.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 2. 별로 공감하지 못한다
- 3. 어느 정도 공감한다
- 4. 매우 공감한다
- 99. 잘 모르겠다

QD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 1. 재해에 따른 피해보장을 확대한다.
- 2. 소득작물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 3. 국내생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4.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35.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수축산 부문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7.1%를 감축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폐기물]

QD36. 귀하는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 2순위: __

- 1.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 2.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
- 3. 매립, 소각 등 안전한 폐기물 관리
- 4. 자원순환 체계구축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5.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D37. 2023년 11월 환경부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감축하겠다고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과도한 규제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으므로 규제를 철회한 것은 잘못이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Part E. 기후위기 대응 책임 및 평가 문항 수 : 9개

QE01.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큰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 2순위: __

- 1. 중앙 정부
- 2. 지방 정부
- 3. 기업
- 4. 국민 개인
- 99. 잘 모르겠다

QE02.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큰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 2순위: __

- 1. 중앙 정부
- 2. 지방 정부
- 3. 기업
- 4. 국민 개인
- 99. 잘 모르겠다

QE03. 귀하께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 6점 |
| 2. 1점 | 8. 7점 |
| 3. 2점 | 9. 8점 |
| 4. 3점 | 10. 9점 |
| 5. 4점 | 11. 10점 매우 중요하다 |
| 6. 5점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E04.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기업”이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 6점 |
| 2. 1점 | 8. 7점 |
| 3. 2점 | 9. 8점 |
| 4. 3점 | 10. 9점 |
| 5. 4점 | 11. 10점 매우 중요하다 |
| 6. 5점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E05.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가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 6점 |
| 2. 1점 | 8. 7점 |
| 3. 2점 | 9. 8점 |
| 4. 3점 | 10. 9점 |
| 5. 4점 | 11. 10점 매우 중요하다 |
| 6. 5점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E06.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중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원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300까지 숫자를 써주십시오.

_____명  Coding: 0~300까지만 입력 가능

999. 잘 모르겠다

QE07. 기후위기 대응을 귀하가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 6점 |
| 2. 1점 | 8. 7점 |
| 3. 2점 | 9. 8점 |
| 4. 3점 | 10. 9점 |
| 5. 4점 | 11. 10점 매우 중요하다 |
| 6. 5점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E08. OECD에 속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기후위기 문제가 주된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귀하께서는 그 이유가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2. 유권자가 기후를 기준으로 투표하지 않아서

- 3. 기후 문제보다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해서
- 4.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아서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E09. 귀하께서는 다음 정당 중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순서대로 두 개 정당을 선택해 주세요. 국회 의석수 순으로 제시합니다.

1순위: ____, 2순위: ____

- | | |
|------------|--------------------------|
| 1. 더불어민주당 | 7. 한국희망 |
| 2. 국민의힘 | 8. 녹색당 |
| 3. 정의당 | 97. 기타 정당(적어 주세요: _____) |
| 4. 기본소득당 | 98. 없음 |
| 5. 시대전환 | 99. 잘 모르겠다 |
| 6. 진보 성향자당 | |

Part F. 지역 이슈

문항 수 : 45개

[서울]

QF01. 서울에서는 매일 3,20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그 중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던 1,000톤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마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포구 주민들은 이미 하루 7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다음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치구별 생산 쓰레기는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한다
- 2. 서울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3. 시설이 없는 자치구 주민들의 비용으로 처리시설이 있는 자치구를 지원해야 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F02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여한 후 이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컵보증금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 | |
|---------------|------------|
| 1. 매우 반대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99. 잘 모르겠다 |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

[경기]

QF03. 현재 경기도는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 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다음 두 주장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 1.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추진되어야 한다
- 2.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04.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산지를 개발해서 주택과 도로, 산업단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한 다음 주장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 1. 산림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므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 2. 주택, 도로, 산업단지 확충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99. 잘 모르겠다

[인천]

QF05.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021년 충남·전남북 일대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한국의 갯벌'로 등재하면서, 2024년까지 인천·경기 갯벌도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갯벌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매립 등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06. 옹진군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 석탄발전소의 수명은 2044년까지입니다. 향후 옹진군 석탄발전소 운영을 다음 중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044년까지 운영해야 한다
- 2. 2035년 정도에는 폐지해야 한다
- 3. 2030년 정도에는 폐지해야 한다
- 4. 당장 폐지해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07. 현재 인천 앞바다에 3건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강원]

QF08. 현재 강원도 삼척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삼척시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다음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계획대로 가동하고 발전소 수명을 채워야 한다
- 2. 계획대로 가동을 시작하되 가급적 조기에 폐쇄하여야 한다
- 3. 가동하지 말고 폐쇄하여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09.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지역발전을 위해 잘한 결정이다
- 2. 환경파괴를 가져올 잘못된 결정이다
- 99. 잘 모르겠다

QF10. 강릉 주문진에 전국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매립장 설치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대전]

QF11. 대전시는 민선 7기까지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민선 8기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필요하므로 재개해야 한다
- 2. 불필요하므로 재개할 필요가 없다
- 99. 잘 모르겠다

[세종]

QF12. 귀하께서는 세종보의 해체나 존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해체해야 한다
- 2. 존치해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13. 금강 한가운데에는 합강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 1. 합강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2. 합강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99. 잘 모르겠다

QF14.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 자가차량 교통 분담률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교통정책으로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 1.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
- 2. BRT, 지선버스 등 대중교통편을 확충해야 한다
- 3. 자가차량용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충남]

QF15.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발전소 부지에 소형 원자로인 SMR(300메가와트 이하 규모) 발전소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16. 충남에는 태안, 당진, 보령, 서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점차 폐쇄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가 다음 중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중앙정부
- 2. 지방정부
- 3. 관련 기업
- 4. 발전소 소재지 등 해당 지역 주민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충북]

QF17. 충북 북부지역에 밀집해 있는 시멘트공장은 2021년 기준으로 1,8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충북 지역의 시멘트공장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 1.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2.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 3. 탄소발생 저감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 4. 기업 운영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18. 충북지역에는 2개의 다목적댐과 3개의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연보전이 중요하므로 잘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발전이 중요하므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두 주장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 1.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 2. 보호구역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19. 현재 충북도청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정책이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과 '친환경정책이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광주]

QF20.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도 이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2020년에 선언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선언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하십니까?

- 1.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 2.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99. 잘 모르겠다

QF21.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백만평 광주숲'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백만평 광주숲' 조성운동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22.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부문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다음 5개 정책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중교통 확대
- 2. 자전거 이용 확대
- 3. 도로 주변 녹지 확대
- 4. 차 없는 거리 확대
- 5. 차로 줄이기(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전남]

QF23. 최근 10여 년간 전남지역은 가뭄 피해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4개 대책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별 물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2. 4대강 보를 더 활용하여 물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 3.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F24. 전남지역에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25.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폐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정부는 10년씩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전북]

QF26. 새만금간척지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부지를 조성 중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업 유치 방식의 민간개발
- 2.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 3. 전라북도 출자형식의 공공개발
- 4. 새만금 인접시·군(김제·부안·군산)이 주도하는 공공개발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F27. 귀하께서는 향후 새만금사업 개발을 다음 중 어떤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
- 2. 현재 수준에서 확보한 부지만 개발해야 한다
- 3.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F28. 귀하께서는 전라북도가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이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광역버스교통망 등 대중교통 수단 확대
- 2. 버스 및 기차 요금 할인
- 3. 자전거 등 저탄소배출 이동수단 확대
- 4. 승용차 이용자 혜택 축소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F29. 새만금호에 대해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 결정(2021년 2월) 이후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조력발전소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새만금 조력발전소 의견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부산]

QF30. 올해 4월 고리 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하여 멈춰 있습니다. 정부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고리3·4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원전의 수명연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31. 귀하께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32. 현재 부산 다대포, 청사포, 기장 3곳에 총 336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울산]

QF33. 울산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로 새울 1·2기가 가동 중이며 3·4호기가 건설 중입니다. 추가로 서생 지역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신규 원전을 유치하자는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34.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울산시에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경남]

QF35. 환경부가 전국에 10곳의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은 5곳(김해·거제·의령·함양 등)을 신청했는데, 귀하께서는 댐 신규 건설 추진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36. 정부가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산/경남 지역의 먹는 물 취수원을 다양화(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 등을)하여 기존 낙동강물과 섞어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두 주장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 1. 취수 지역의 주민 동의가 우선이므로 유보해야 한다
- 2. 물 자원은 공공재이므로 취수원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99. 잘 모르겠다

[대구]

QF37. 대구광역시가 저탄소녹색교통 활성화 취지로 추진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전용지구 해제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38. 대구광역시는 문화관광 활성화, 생태탐방로 시민이용 편의를 목적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강 자연습지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39. 대구시 서구에 있는 염색산업단지는 유연탄을 원료로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80만톤, 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8.6 %,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8%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열병합발전소의 운영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 1. 유연탄 연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 2. 유연탄 연료를 중단하고 LNG발전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 3. 염색산업단지를 대구 도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경북]

QF40.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형 원자로인 SMR(300메가와트 이하 규모)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경상북도의 정책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41.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농가들의 냉해 피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1. 올해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
- 2.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다.
- 99. 잘 모르겠다

QF42. 경상북도에는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작업복, 장갑 등) 처분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은 없는 상황인데, 이 시설을 경북에 설치하자는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제주]

QF43.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도민투표로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F44. 제주도에서 전기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물은 '상업건물'입니다. 상업건물의 전기소비 감축과 관련하여 다음 주장 중 무엇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 1.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
- 2. 민간의 불매운동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여야 한다
- 3. 지방정부가 조례와 행정규제 등을 통해 감축을 강제해야 한다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QF45. 귀하께서는 제주도에서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의 대책 중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 2.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
- 3. 보행 및 자전거 등 이용 확대
-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Part G. 행위 의지

문항 수 : 5개

QG01.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 1. 전혀 의향이 없다
- 2. 별로 의향이 없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
- 5. 매우 의향이 있다

QG02. 우리 식단에서 육류소비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일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 1. 전혀 줄일 의향이 없다
- 2. 어느 정도 줄일 의향이다
- 3. 크게 줄일 의향이 있다
- 4. 완전히 줄일 의향이다
- 99. 잘 모르겠다

QG03. 귀하께서는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 다음 중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1. 내연기관차 구매 예정
- 2. 전기차 구매 예정
- 3. 수소차 구매 예정
- 4.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다
- 99. 잘 모르겠다

QG04. 귀하께서는 사시는 집이나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 1. 전혀 의향이 없다
- 2. 별로 의향이 없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
- 5. 매우 의향이 있다

QG05.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행기 이용 횟수를 줄일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 1. 전혀 의향이 없다
- 2. 별로 의향이 없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
- 5. 매우 의향이 있다

Part H. 정치 성향, 표본 질문

문항 수 : 28개

※ 다음은 국회 의석수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미래당, 녹색당 각각에 대해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호감이 가지 않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QH01. 귀하께서는 평소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5. 매우 호감 간다
- 99. 잘 모르겠다

QH02. 귀하께서는 평소 국민의힘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5. 매우 호감 간다
- 99. 잘 모르겠다

QH03. 귀하께서는 평소 정의당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5. 매우 호감 간다
- 99. 잘 모르겠다

QH04. 귀하께서는 평소 기본소득당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5. 매우 호감 간다
- 99. 잘 모르겠다

QH05. 귀하께서는 평소 시대전환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5. 매우 호감 간다
- 99. 잘 모르겠다

QH06. 귀하께서는 평소 진보당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 | |
|-----------------|----------------|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5. 매우 호감 간다 |
| 3.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H07. 귀하께서는 평소 한국의희망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 | |
|-----------------|----------------|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5. 매우 호감 간다 |
| 3.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QH08. 귀하께서는 평소 녹색당에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 | | |
|-----------------|----------------|
| 1.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 4. 어느 정도 호감 간다 |
| 2.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 | 5. 매우 호감 간다 |
| 3. 보통이다 | 99. 잘 모르겠다 |

[정당 지지]

QH09. 귀하께서는 평소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국회 의석수 순으로 제시합니다.

- | | |
|-----------|--------------------------|
| 1. 더불어민주당 | 7. 한국의희망 |
| 2. 국민의힘 | 8. 녹색당 |
| 3. 정의당 | 97. 기타 정당(적어 주세요: _____) |
| 4. 기본소득당 | 98. 지지하는 정당 없음 |
| 5. 시대전환 | 99. 잘 모르겠다 |
| 6. 진보당 | |

QH10. 귀하께서는 그다음으로 지지하시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국회 의석수 순으로 제시합니다.

- | | |
|-----------|--------------------------|
| 1. 더불어민주당 | 7. 한국의희망 |
| 2. 국민의힘 | 8. 녹색당 |
| 3. 정의당 | 97. 기타 정당(적어 주세요: _____) |
| 4. 기본소득당 | 98. 지지하는 정당 없음 |
| 5. 시대전환 | 99. 잘 모르겠다 |
| 6. 진보당 | |

QH11. 귀하께서는 지난 몇 해 동안 지지하시는 정당을 바꾸셨나요, 아니면 계속 지지해 오셨나요?

- | | |
|-----------------|-----------|
| 1. 계속 지지해왔다 | 3. 잘 모르겠다 |
| 2. 지지하는 정당을 바꿨다 | |

QH12. (QH11의 2번 응답자만) 지지하시던 정당에 지지를 철회하신 경우 다음 중 어떤 이유인가요?

- | | |
|-------------------|-----------------------|
| 1. 정체성에 실망해서 | 5. 지나치게 싸움만 해서 |
| 2. 추진 정책에 실망해서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 3. 소속 인물에 실망해서 | 99. 잘 모르겠다 |
| 4. 정당의 의정활동에 실망해서 | |

[정보 경로]

QH13. 귀하께서 평소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지상파 및 종합편성 TV
- 2. 종이로 인쇄된 신문/잡지
- 3. 라디오(라디오 채널의 유튜브 콘텐츠 포함)
- 4. 인터넷 언론 기사
- 5.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 6.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 7.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 8. 지인과의 대화
- 9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 99. 잘 모르겠다

[정치행동 경험]

※ 귀하께서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고, 없었다면 향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QH14.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1	2	3	4
QH15.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1	2	3	4
QH1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1	2	3	4
QH17.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1	2	3	4
QH18.	불매운동 참여하기	1	2	3	4
QH19.	정당, 시민단체 등 정치·사회단체에 후원하기	1	2	3	4
QH20.	언론 기사에 댓글 달기	1	2	3	4

※ 다음은 사회 이슈에 대한 찬반입니다.

QH21. 귀하께서는 기업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H22. 귀하께서는 어린이 안전통학로에서 30km/h 이하 속도제한을 40km/h로 올리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QH23. 귀하께서는 카페, 식당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 4. 매우 찬성한다
- 99. 잘 모르겠다

QH24. 귀하께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을 섭취하시는 빈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1. 섭취 빈도가 늘었다
- 2. 변화가 없었다
- 3. 섭취 빈도가 줄었다
- 99. 잘 모르겠다

※ 다음은 개인 생활에서 경험 유무입니다.

QH25. 귀하께서는 최근 3년 이내 차량을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QH26. 귀하께서는 최근 3년 이내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QH27. 귀하께서는 최근 3년 이내 채식만을 3개월 이상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QH28. 귀하께서는 최근 3년 이내 텃밭을 가꾼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Demo. 배경 문항

문항 수 : 11개

Demo01. 귀하께서는 얼마나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십니까?

- 1. 매우 진보
- 2. 중도 진보
- 3. 중도
- 4. 중도 보수
- 5. 매우 보수

Demo0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농/임/축/어업
- 2. 자영업
- 3. 관리/전문직
- 4. 경영/사무직
- 5. 서비스/판매/노무직
- 6. 전업주부
- 7. 학생
- 8. 기타/은퇴/무직

Demo03.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는 미혼
- 2. 배우자가 있는 기혼(동거, 사실혼 포함)
- 3. 배우자와 사별/이혼한 독신
- 4. 기타

Demo04. 귀하께서는 동거 여부를 떠나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Demo05. 귀하의 가구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1. 1명
- 2. 3명
- 3. 2명
- 4. 4명 이상

Demo06. 귀하의 거주 방식은 다음 주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자가
- 2. 월세
- 3. 전세
- 4. 기타

Demo07. 귀택 세대주께서는 주택을 소유하시고 있으십니까?

- 1. 소유
- 2. 미소유
- 3. 잘 모르겠다

Demo08.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종교를 신앙하고 계십니까?

- 1. 기독교
- 2. 불교
- 3. 천주교
- 4. 기타 종교
- 5. 없다
- 99. 잘 모르겠다

Demo0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고등학교 졸업
- 2. 2년제 대학 졸업
- 3.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 99. 잘 모르겠다

Demo10. 귀하 가구의 총소득은 연간소득 기준, 세전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 1. 2천만 원 미만
- 2. 2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3. 4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 4. 6천만 원 이상 - 9천5백만 원 미만
- 5. 9천5백만 원 이상
- 99. 잘 모르겠다.

Demo11. 귀하 가구의 총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동산, 부동산 자산을 모두 포함해 선택해 주십시오.

- 1. 5천만 원 미만
- 2. 5천만 원 이상 - 1억 7천만 원 미만
- 3. 1억 7천만 원 이상 - 3억 5천만 원 미만
- 4. 3억 5천만 원 이상 - 7억 원 미만
- 5. 7억 원 이상
- 99. 잘 모르겠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